



# HOMO MIGRANS

Vol.09

2013

Dec.

Homo Migrans :  
Journal of Migration & Ethnic Studies  
Vol.9 (Dec. 2013)

#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

2013년 12월  
ISSN: 2093-3061

[워크샵: “영화 속의 이주”] - 워크샵 소개	05
〈은총으로 충만한 마리아(Maria Full of Grace, 2004)〉	
: 콜롬비아, 미국, 그리고 ‘불법’ 이민 여성의 신체	권은혜 07
〈자유로운 세계(It’s a Free World..., 2007)〉와 침묵당한	
동유럽 이주민들의 욕망	오승은 15
〈영광의 날들(Indigène, 2007)〉에 나타난 북아프리카 출신 군인의	
정체성: 프랑스와 식민지 사이에서 정체성 만들기	신동규 24
<역사 속의 이주, 이주 속의 역사>	
정복의 신화, 이주의 기억: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	홍용진 39
<지금, 여기>	
여전히 지속되는 라이시테를 둘러싼 갈등(프랑스)	박 단 54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에 대한 단상	이정하 62
<다녀와서, 보고와서>	
박물관이 보여주는 지중해 문명의 미래: 마르세유의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MuCEM)을 다녀와서	김진영 71
<책을 읽고>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 지음, 하정희 옮김, 『인종차별의 역사』	
(서울: 예지, 2013)	문종현 78
이선주 지음, 『경계인들의 목소리 -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	
(서울: 그린비, 2013)	오윤호 84
<저널 리뷰>	
<i>Small Axe, A Caribbean Platform for Criticism</i> : 사회적 개입과 새로운	
학문 세대 양성을 추구하는 카리브의 탈식민주의 저널	하영준 93
<연구회 회보>	홍용진 / 총무 104

이민인종연구회

---

# Homo Migrants: Journal of Migration & Ethnic Studies

---

Dec. 2013  
ISSN: 2093-3061

<Workshop: Migration, Migrants and Movies>

- “Maria Full of Grace (2004)”: Columbia, The United States, and  
the Body of an “Illegal” Immigrant Woman.” ————— Eunhye Kwon 05  
Ken Loach’s “It’s a Free World” and Silenced Desires of the Eastern  
European Migrants ————— Seung Eun Oh 07  
Identity of North-african soldiers in “Days of glory”  
: The making of Identity between France and colonies ——— Dongkyu Shin 15

<History in Migration, Migration in History>

- “Myth of conquest, Memory of migration  
: Rigord and Guillaume le Breton” ————— Yong-Jin Hong 39

<Here and Now>

- “Ongoing Conflict over the ‘laïcité’(France)” ————— Dahn Park 54  
“A Short Thought about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 Jeong-Ha Lee 62

<Trips to Historical Sites>

- “The Future of the Mediterranean Civilization From the Museum Perspective”  
————— Jinyoung Kim 71

<Book Reviews>

- Voices of the borders*(Seonju Lee) ————— Youn-Ho Oh 78  
*Une Histoire du racisme*(Christian Delacampagne) ——— Jong-Hyun Moon 84

<Journal Review>

- Small Axe, A Caribbean Platform for Criticism* ————— Young-Jun Ha 93

- <Homo Migrants Bulletin> ————— Yong-Jin Hong 104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 Studies

##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워크샵 소개 ■

## 워크샵: 영화 속의 이주

2013년 이민인종연구회 하반기 학술 워크샵에서는 영화 속에 나타난 이민자들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비해 이민의 역사가 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양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든 아니면 주변적인 인물로 처리하든 많은 이민자들이 영화 속의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민’이라는 주제로 이민자들을 주요 인물로 내세워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이민이 정치 및 사회적 이슈로 첨예해지기 시작한 시기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민과 이주를 주제로 영화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민자들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화라는 예술장르가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감독을 비롯한 영화 제작자들의 주관적 관점과 해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영화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영화 내적인 차원에서 영화가 어떤 이민자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영화속의 이민자는 해당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민자들과 이민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영화 외적인 차원에서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해당 사회와 그 사회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감독의 시선은 어떠한지? 감독의 해석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감독의 문제제기는 적실한 것인지? 우리는 영화가 일정부분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를 통해 한 사회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화의 가치와 의의를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 준비된 세 편의 발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의 이민자 문제들을 다룬 영화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편의 영화들은 단지 이민자 문제들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민자 문제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여성, 경제, 가족, 전쟁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풍성하고도 열띤 논쟁의 장을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워크샵 ■

〈은총으로 충만한 마리아(Maria Full of Grace, 2004)〉 : 콜롬비아, 미국, 그리고 ‘불법’ 이민 여성의 신체

권은혜

영화 『은총으로 충만한 마리아』는 17세의 콜롬비아 소녀 마리아 알바레즈가 임신한 몸으로 마약 알갱이를 삼키고 소위 ‘마약 노새(a drug mule)’로 미국에 들어와 결국 정착을 결심하는 과정을 다룬다. 왜 마리아는 마약 알갱이가 몸 안에서 터져 중독되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가? 불법적이고 잔인한 마약 밀매 과정을 세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범죄영화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마약 밀매 조직이나 갱 폭력은 이 영화에서 배경에 불과하다.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콜롬비아의 가난한 젊은 여성들의 고달픈 일상,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이들의 결단력과 용기이다. 마리아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타고 가는 블랑카, 루시는 교육의 기회없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딸들이다.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영화감독 조슈아 마스틴(Joshua Marston)은 저개발 국가 콜롬비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젊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마약 밀매라는 위험한 선택의 고비를 넘기고 들어온 미국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보여준다.

주인공 마리아는 할머니와 어머니, 미혼모 언니와 그 아들과 함께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산다. 이 가족의 주 수입원은 장미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마리아의 월급이다. 매일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마리아와 친구 블랑카는 플랜테이션으로 간다. 여기서는 중년 남성



관리자의 엄격한 감시아래 백여 명의 젊은 여성들이 하루 종일 서서 고글과 장갑을 끼고 장미 가시를 제거해 다발로 정리해 상자에 담는 일을 한다. 장갑을 끼어도 날카로운 장미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마리아의 손가락에는 반창고가 늘 덕지덕지 붙어있다. 이 영화의 비평 중 하나에서 언급되었듯이, 북미로 수출되어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는 장미들은 동네 꽃가게의 주인들이 아니라 콜롬비아 여성들의 손길을 거쳐 아름답게 손질되는 것이다.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플랜테이션 노동을 마리아는 무덤덤하고 묵묵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임신한 마리아는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노동 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장미를 손질하다 구토를 참지 못한다. 냉정한 관리자는 그녀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망가진 장미들을 다 씻어 원래대로 해 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다. 그 길로 마리아는 플랜테이션 일을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임신사실은 숨긴 채 마리아는 어머니와 언니에게 플랜테이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었고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한다. 일할 생각이 없는 언니는 애가 아파 약값이 필요하다며 마리아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 어머니는 장미 플랜테이션에서 꽃을 다루는 일이 젊은 여성에게 ‘적합’하고 ‘품위’있는 일이라고 우긴다. 자기와 태어날 아기의 미래를 고민하는 마리아는 현상유지적이고 수동적인 어머니와 언니가 답답하기만 하다.

마리아는 남자친구이자 애 아버지인 후안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자기는 언니처럼 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살 생각이 없다고 마리아는 덧붙인다. 후안이 청혼하자 마리아는 결혼 후 어디서 살 것인지를 의논한다. 후안은 자기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고집한다. 식구가 10명이나 되고 남자형제만 있으며 이미 사촌과 한 방을 쓰는 후안의 집으로 들어갈 순 없으니 마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살자고 한다. 그러자 후안은 여자만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고 싶지 않고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잔소리 듣기 싫다고 투덜거린다. 결국 마리아는 후안의 청혼을 거절한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 블랑카와 댄스홀로 가서 춤을 추다가 마리아는 프랭크를 만난다.

어리지만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마리아는 도시로 가서 입주

가정부 자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보고타행 버스를 기다리던 마리아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지나가던 프랭크를 만나고 프랭크는 그녀를 태워준다. 잠시 쉬던 중에 프랭크는 마리아에게 일종의 ‘배달부’ 일이라며 마약 밀매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다. 처음에 거절하던 마리아는 자기만 바라보는 가족과 혼자서 키워야 할 아이 생각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보고타에 도착한 후 프랭크는 마리아를 당구장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마리아는 마약 밀매 관리자를 만난다.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 관리자는 선금을 내민다. 당구장에서 나오는 길에 마리아는 루시를 만나고 같은 버스를 탄 이들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루시가 한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집에 돌아온 마리아는 블랑카도 프랭크의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말리려고 한다. 블랑카는 한번 다녀오면 집 없이 사는 가족에게 집을 사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할 말이 없어진다. 루시를 만나 마리아는 마약 덩어리를 잘 삼키게 도와주는 약을 받고 포도 알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연습을 하다 루시가 이 일에 가담하게 된 동기를 듣게 된다. 루시는 미국에 2번 다녀온 적이 있고 갈 때마다 뉴욕에서 사는 언니를 직접 만나려고 했지만 집 앞까지 갔다가 결국 되돌아오고 말았다. 언니가 어떻게 뉴욕까지 올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하면서 루시는 마리아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보고타의 한 약국에서 마리아는 62개의 마약 알갱이를 삼킨다. 비행기 안에서 마리아는 루시와 다른 한 여성도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루시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안색이 창백하다. 뉴욕 JFK공항에 도착하기 전 입국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텔 주소를 잃어버린 마리아는 루시에게 물어보지만 루시는 뉴욕 퀸즈에 사는 언니의 주소를 늘 사용했다면서 그 주소를 알려준다. 뉴욕에 도착한 후 마리아와 나머지 한 여성은 공항 보안 경비원에 걸려 까다로운 취조를 받는다. 뉴욕의 공항 보안 경비원들은 콜롬비아에서 오는 여성 여행자를 일단 ‘마약 노새’로 가정하는 것 같다. 이들은 누가 마리아의 여행 경비를 대고 콜롬비아에서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미국에 왜 왔는지를 반복적으로 물어본다. 마리아는 언니를 만나러 왔고 남자친구가 여행 경비를 대주었고 전 직업은 장미 플랜테이션에서 장미 가시를 제거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경비원들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지만 소변검사 결과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다. 마리아, 루시, 블랑카는 공항 밖에서 대기하던 차에 실려 뉴저지의 호텔로 끌려간다. 이들은 몸 안에 있는 마약 덩어리를 다 밀어내야 한다. 한편 루시의 상태는 악화되고 마리아는 두 명의 감시자들에게 루시를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무시당한다.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일어난 마리아는 피범벅이 된 욕조를 발견한다. 루시와 감시자들은 사라지고 없다. 루시가 죽었거나, 상태가 위험해지자 루시를 죽여 배를 가르고 마약 덩어리를 꺼낸 후 사체를 은닉하러 간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한다. 블랑카를 깨우고 상황을 설명한 후에 들어서 밀어내 놓은 마약 덩어리들을 모두 챙겨 이들은 도망친다.

마리아는 블랑카를 데리고 퀸즈에 사는 루시의 언니 칼라의 아파트로 가서 그녀를 만나려고 한다. 블랑카는 루시에게 일어난 일에 냉담하게 반응하며 갱에게 마약을 넘겨주고 돈만 받아내겠다며 마리아를 버리고 혼자 가버린다. 칼라를 만난 마리아는 자신을 루시의 친구라고 소개한다. 지난 5년간 루시와 고향 가족을 만나지 못한 칼라는 반가와하며 마리아가 어떻게 뉴욕에 오게 되었냐고 물어본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얘기도 루시의 얘기도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다. 칼라에게 마리아는 일자리를 찾으러 뉴욕에 왔다고 말하고 루시는 콜롬비아에서 비서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 칼라의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는 마리아의 부탁을 칼라는 친절히 받아들인다. 다음날 칼라는 콜롬비아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중개업소로 마리아를 데려다 주고 자신은 일하러 떠난다. 마리아는 중개업자 돈 페르노에게 자신과 친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경찰에게 연락하겠다는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나 돈 페르노는 마리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안심시킨다.

칼라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리아는 여성 클리닉을 발견하고서 거기서 진단을 받는다. 마약 운반이라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위험을 겪었지만 초음파로 태아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마리아는 환하게 웃는다. 마리아는 다음 진단 약속을 정해 놓는다. 칼라의 집에 와보니 달리 갈 곳이 없어진

블랑카가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다. 블랑카까지 루시 친구라고 하며 숙박을 요청하자 칼라는 점점 마리아를 의심하게 된다.

돈 페르노는 경찰로부터 젊은 여성의 사체 사진을 받고 마리아에게 보여준다. 마리아는 사진 속의 그녀가 루시인 것을 확인한다. 루시를 콜롬비아의 가족에게 돌려보내려면 2500달러가 필요하다. 이제 마리아는 갱들과의 거래를 결심한다. 마리아가 돈 페르노는 만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지 갱들은 마리아와 블랑카에게 엄포만 주다가 결국 그들 몫의 현금을 넘겨준다. 마리아는 루시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유가족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면서 갱들에게 루시의 몫도 요구한다. 경찰에게 연락하겠다는 마리아의 협박에 갱들은 코웃음을 치며 떠난다. 장례회관에서 칼라를 만난 마리아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칼라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여동생 앞에서 오열한다. 마리아는 루시를 콜롬비아로 보낼 비용을 스스로 치른다.

콜롬비아로 돌아가기 위해 블랑카와 공항으로 가던 중 마리아는 다음 날이 산부인과 진찰일인 것을 떠올린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있던 마리아는 갑자기 줄에서 이탈한다. 그리고 먼저 탑승게이트로 가고 있는 블랑카를 부른다. 블랑카는 마리아를 잠시 응시하다 갈 길을 가고 마리아도 등을 돌려 자신의 갈 길을 간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마약 밀매와 폭력이라는 무겁고 잔혹한 소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사랑과 윤리적 책임감에 근거한 콜롬비아 여성들의 순간적이고 현실적인 선택들이다. 마리아는 돈 때문이라기 보단 가난한 가족의 현실과 태어날 아기의 미래를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한다. 그녀가 결국 미국에 남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삭의 몸인 칼라는 마리아에게 콜롬비아의 가족이 그림긴 하지만 거기서 자기 아이를 기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태어날 아이가 미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어머니로서 칼라와 마리아 모두 그들의 아이가 그들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랄 뿐이다.

이 영화에서는 마리아의 신체는 노동자, ‘마약 노새,’ 임신한 여성이라는 단계들을 중첩적이지자 단계적으로 경험한다.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영화 초반부에서는 노동자/임신한 여성, 중반부에서는 ‘마약 노새’/임신한 여성, 그리고 후반부에서 임신한 여성으로 마리아의 신체적 상황은 변한다. 영화 내내 마리아의 신체를 규정하는 상수는 임신이고 마리아는 그녀의 위험한 선택들과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임신 상태를 염두에 두는 어머니로 그려진다.

미국과 콜롬비아가 경제적으로 매우 다른 처지에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의 신체와 행위에 부여되는 젠더 규범일 것이다. 관습적인 젠더 규범에서 장미 플랜테이션 여성 노동자의 신체와 ‘마약 노새’로서의 신체는 임신한 어머니의 신체와 양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녀가 처한 현실이 규범과 다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런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 블랑카는 루시의 언니를 찾아가 사실대로 말하는 게 도리라는 마리아와 말다툼하는 과정에 ‘임신한 몸에 마약 알갱이를 담은 네가 엄마가 맞냐’고 매섭게 비난한다. 친구의 비난에 마리아는 자기 입장을 변명하지도 죄책감이나 후회를 드러내는 표정을 짓지도 않는다. 마리아가 뉴욕에서 여성 클리닉을 찾아가 상담하는 장면에서 필자는 사실 마리아가 낙태를 하려는 거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마리아가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미소짓는 다음 장면을 보고 필자가 임신한 십대 여성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 편견을 적용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라는 규범, 임신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콜롬비아 여성의 현실, 이 둘 사이에서 마리아는 독립적인 의지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어머니가 되어간다.

『은총으로 충만한 마리아』의 많은 미덕 중 하나는 투철하고 성실한 리얼리즘이다. 콜롬비아인들과 뉴욕 퀸즈의 콜롬비아 공동체가 사실상 주인공인 이 영화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독 마스틴은 콜롬비아 현지인들과 뉴욕의 콜롬비아 이민자들 중에서 배우를 선발하고 스페인어 각본과 콜롬비아 현지 촬영을 고집했다. 마스틴에 따르면 HBO가 제작에 참여하기 전까지 이 영화는 스페인어 영화라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

제작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고 제작 자체만 4-5년이 걸렸다. 출연진의 언어, 에스니시티가 캐릭터와 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영화의 진실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마스틴의 각본에는 그가 수년간에 걸친 실시한 현지 조사를 통해 축적한 콜롬비아의 사회적 현실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미국인이자 스페인어가 모국어가 아닌 감독으로서 콜롬비아의 현실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택한 대안은 배우들의 실제 경험과 콜롬비아식 스페인어를 각본에 녹아나게 하는 것이었다. 마스틴은 배우들 덕분에 자신의 각본과 캐릭터가 더 풍부해지고 사실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한다. 극중 역할과 실제 삶이 일치라는 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배우는 바로 돈 페르노 역을 맡은 올렌도 토본(Orlando Tobon)이다. 실제로 토본은 가장 큰 콜롬비아 공동체가 있어 리틀 콜롬비아라고도 불리는 퀸즈의 잭슨 하이츠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한다. 영화에서 나오는 돈 페르노처럼 토본은 콜롬비아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실제로 ‘마약 노새’로 뉴욕과 뉴저지로 들어왔다가 사망한 사람들을 콜롬비아로 송환하는 일을 하고 있다.<sup>1)</sup>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연배우인 카탈리나 산디노 모레노(Catalina Sandino Moreno)의 연기이다. 콜롬비아에서 연기 지망생이던 모레노에게 이 영화는 배우 데뷔작이다. 마스틴은 마리아를 찾기 위해 8백 명을 인터뷰했다. 모레노를 만나기 전까지 마스틴은 “17세 콜롬비아 소녀의 머리 속에 들어갈” 수 있지 늘 회의적이었다고 고백한다. 마리아를 찾기 위해 실제로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십대들을 직접 만나보면서도 마스틴은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 모레노는 만나고 나서야 마스틴은 “그녀라면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들을 모두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sup>2)</sup>

모레노의 마리아 연기가 가지는 설득력을 필자의 부족한 언어로 표현하기란 요령부득이다. 마스틴과 모레노가 함께 만들어낸 마리아는

1) 마스틴의 제작 경험을 다룬 인터뷰를 참고하시오. Rebecca Murray, “Interview with Joshua Marston,” About.com Guide, [http://movies.about.com/od/mariafullofgrace/a/maria070704\\_3.htm](http://movies.about.com/od/mariafullofgrace/a/maria070704_3.htm) (8월 17일 검색).

2) *Ibid.*

그 자체로 상식, 사실성, 솔직함과 진정성을 체화한 인물이다. 모레노의 연기는 마리아가 실존인물이라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종의 메소드 연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레노의 연기가 가장 빛나는 장면 중 하나는 공항에서의 취조신이다.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야 하는 절박함에서 마리아는 사실처럼 들리는 거짓말을 하고 보안 경비원들도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만 그녀의 일관적이고 솔직한 태도와 표정에 어쩔 도리가 없다.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의 지적처럼 마리아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살아남기 위해 상식을 활용하는” 인물이다.<sup>3)</sup> 이 연기로 모레노는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베를린 영화제를 포함한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목의 한글 번역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싶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기품있는 마리아’라는 번역도 타당하긴 하지만 영화의 맥락상 ‘은총으로 충만한 마리아’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극중 마리아는 카톨릭 신자로 그려지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성당에 가서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남미 여성 기독교신자들에게 성모 마리아 숭배가 여전히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스틴은 종종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빌어 주인공 마리아를 묘사한다. 일단 이름부터가 마리아이고 마리아가 영화 처음부터 임신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영화 포스터에서 마약 알갱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마리아의 표정은 순수하고 진지하다. 한편으로 영화 포스터의 의도는 마약 밀매와 여성 ‘마약 노새’라는 폭력적인 소재를 완곡하게 표현하여 아이러니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포스터는 은총으로 이미 충만해진 미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두운 현실을 대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양대학교 eunhyekwon@hotmail.com

---

3) Roger Ebert, Maria Full of Grace, July 30, 2004. <http://www.rogerebert.com/reviews/maria-full-of-grace-2004> (8월 17일 검색).



■ 워크숍 ■

〈자유로운 세계(It's a Free World..., 2007)〉와 침묵  
당한 동유럽 이주민들의 욕망

오 승 은

I. 감독의 욕망? 동유럽 이주민들의 욕망?

영국의 좌파 감독 켄 로치(Ken Loach)의 2007년 작 <자유로운 세계(It's a Free World)>는 동유럽 이주 노동자 모집 에이전시의 계약직 직원 앤지의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환상을 비판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싱글 맘에, 비정규직으로 영국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결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제의 문제를 직시하고 비판하고 저항을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착취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기생하려는 앤지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이는 동유럽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며 한 몫 챙기려는 앤지의 허황되고 부도덕한 욕망과 환상을 일깨움으로써 영국인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앤지의 환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화 <자유로운 세계>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기존의 서유럽 이주 영화와는 다른 것이다. 80년대 이후 유럽 대륙에서는 동유럽 이주민을 주제로 한 영화가 40여 편이 넘게 만들어졌다.<sup>1)</sup> 이들 중 많은 영화들은 로쉬츠키(Yosefa Loshitzky)의 개념을 차용하자면, 동유럽 이주민들이 품고 있는 ‘이주 환상(migration fantasy)’을 다루고 있다. ‘이주 환상’이란 동유럽 사람들이 서유럽에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오지만, 그것이 헛된 환상에 불

1) Kris Van Heuckelom, “Londoners and Outlanders: Polish Labour Migration through the European Lens,”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No.91. Vo.2, (2013), 211.



과하다는 것이다.<sup>2)</sup>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은 서유럽으로 오지 말고 그냥 동유럽 당신의 나라에 남아서 그곳을 바꾸려 해봐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주민들의 환상이 아닌 서유럽 사람들이 품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는 켄 로치 감독의 <자유로운 세계>는 분명 다른 유럽의 이주 영화와는 차별화를 이룬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켄 로치 감독의 준엄한 자본주의 비판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 속 자본주의 비판이 ‘정말로 영국에 있는 동유럽 이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내뿜는 비판의 목소리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다른 사람의 삶을 망쳐놓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조직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켄 로치의 비판에는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3)</sup> 그러나 영화에서 주인공 앤지의 네메시스(Nemesis)로 등장해 그녀의 양심을 끊임 없이 자극하는 폴란드 출신의 이주 노동자 카롤(Karol)이나, 앤지와 대척점에서 있는 다른 동유럽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은 현실적이지 않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숭고하게 그려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인물 묘사 속에서 동유럽 이주민들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드러낼 기회는 묻혀버리는 것은 무척이지 아쉽게 다가온다.

현재 영국에는 500,000만 명에 이르는 폴란드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유럽 8개국이 유럽연합에 2004년 가입한 이후

---

2) Yosefa Loshitzky, *Screening Strangers: Migration and Diaspora in Contemporary European Cinema*,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3) 원문은 “Why do we organize society in such a way that success is marked by how heavily you can screw other people? We ought to be organizing society in such a way that people cooperate, rather than try and exploit each other.” TIFF interview: *It's a Free World Director Ken Loach*, “*Cinematicial* (3 September 2007), <http://news.moviefone.com/2007/09/13/tiff-interview-its-a-free-world-director-ken-loach/> (검색일 2013, 7월 21일)

2011년까지 669,000명의 동유럽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하였으며,<sup>4)</sup> 그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폴란드 출신이다. ‘폴란드 배관공(Polish plumber)’이라는 표현이 동유럽 이주 노동자의 대명사로 쓰일 만도 하다. 영화 속 카롤은 그런 영국의 동유럽 이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카롤은 정말로 동유럽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동유럽 이주민들은 영화 속 카롤처럼 영국에서의 경험 한 번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꿰뚫어보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가능할까?

본고에서는 영화 <자유로운 세계>에 나타난 켈 로치 감독의 자본주의 비판 아젠다가 꼭 유럽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하는 동유럽 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지로 삼고자 한다. 오히려 감독의 그러한 숭고한 정치 비판 아젠다가 동유럽 사람들을 도덕주의라는 협소한 내러티브 틀 속에 가두어버려 정작 동유럽 이주민들의 실제적 요구와 현실적 욕망이 무엇인지 말할 기회를 주지는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유로운 세계>의 이런 한계를 다른 소비에트 진영 출신의 감독이 만든 영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Malenkie Ljudi (2003)>과 비교해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자유로운 세계>와 달리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동유럽 사람들의 자본주의 환상을 좀 더 사실감있게 조명함으로써, 자본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겪고 있는 구(舊)소비에트 진영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는 무엇인지 좀 더 개연성 있는 재현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비교 작업을 통해 <자유로운 세계>에서 침묵당한 동유럽 이주민들의 실제 욕망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고자한다.

## II. <자유로운 세계>와 동유럽 이주민들의 도덕적 타화상

영화 <자유로운 세계>는 주인공 앤지(Angie, 24세)가 폴란드 남동부 공

---

4) Oxford City University's Centre for Comparative Social Surveys, *The Telegraph*, 'Britons have become 'more tolerant of immigration as numbers increase'', 2013년 4월 4일자 인용.<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immigration/9970122/Britons-have-become-more-tolerant-of-immigration-as-numbers-increase.html> (검색일 2013년 4월 28일).

업도시 카토비체(Katowice)에서 이주 노동자 모집 면접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앤지는 영국 노동자 계급 출신의 싱글 맘으로, 이주 노동자 직업소개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에게는 아들 제이미가 하나 있으나, 같이 살지는 못하고 부모님에게 맡겨둔 상황. 꿈이 있다면 얼른 돈을 벌어 점점 더 빠뜨어져 나가는 아들 제이미와 한 집에 사는 것. 그러나 앤지의 꿈은 곧 난관에 부딪힌다. 카토비체 출장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앤지를 기다리는 것은 해고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카토비체에서 출장을 끝내고 저녁 술자리를 갖던 날 상사의 성희롱을 거부했는데, 보복성으로 오히려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2000만원(12,000파운드)이 넘는 빚이 있는 앤지는 무슨 일이든 찾아야 했다. 그래서 돌파구로 찾아낸 것이 자신이 여태까지 몸담고 일해서 가장 잘 아는 일, 바로 이주 노동자 직업 알선 소개소를 차리는 것이다. 앤지는 사업 파트너로 친구 로즈(Rose)를 끌어들여 <앤지와 로즈의 레인보우 에이전시>를 만든다. 그러나 곧 앤지는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 소개보다는 불법 이주노동자 알선 사업이 훨씬 더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불법 소개 사업에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 간다.

또 다른 주요 등장인물, 폴란드 출신의 이주 노동자 카롤(Karol)은 점점 더 악덕 고용주가 되어가는 앤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의 네메시스(nemesis)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그런데 영화 속 카롤은 참으로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처음부터 ‘유럽 2등 시민’의 위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필요와 희망사항을 영국 고용주에게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카롤과 함께 일하는 다른 동유럽 이주 노동자들도 도덕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sup>5)</sup> 예를 들어, 영화의 중반쯤 앤지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자, 이들 중 몇 명이 극단적 조치를 취해 앤지의 아들 제이미를 납치하고 몸값으로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납치꾼들의 대장은 영어로 상당히 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인물로 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앤지의 위선을 비난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연설을 한다. 이들은 또한 납치라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불공정한 세상의 어쩔 수 없는 희생양으로 그려진다. 앤지에게 몸값으로 앤지가 체불한 임금이외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해도 끼치지 않는다. 납치한 아들 제이미는 너무나 잘 대해줘 자신이

5) ‘Can the Polish Migrant Speak?’, 319.

납치당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이다.

요컨대 영화 속 카롤이나 다른 폴란드 이주 노동자의 역할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앤지라는 서유럽 사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준엄하게 비판하기 위한 매개체로써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켈 로치 감독의 문제의식은 서유럽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직면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간적 존엄성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상을 동유럽 이주민들에게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여기서 동유럽 이주민 문제란 서유럽인들의 자각을 각성시키기 위한 촉매제 정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켈 로치가 그린 동유럽인들의 타화상이 갖는 문제는 무엇일까? 사회의 기층민으로 밑바닥에서 그날그날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이주민들이 영화 속 동유럽 등장인물처럼 언어적 장벽이나 심리적으로 주눅 들지 않고 별 어려움 없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표출시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납치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정확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만큼만 받아간다는 이야기도 지나치게 작위적 상황설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켈 로치가 그리고 싶은 대로 숭고한 도덕적 구원자가 되기 이전에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실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인류의 단결을 주장하는 켈 로치라는 영국 감독의 아젠다에 폴란드 이주 노동자들이 고민하는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세계>는 동유럽 이주민들을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아주 협소

---

6) *Ibid.*, 318.

한 내러티브 공간'에 가두어버려,<sup>7)</sup> 사회 최저 기층민으로서 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언권의 기회를 빼앗아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켈 로치 감독의 영화는 동유럽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스스로를 대변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부과된 '서유럽의 서발턴(subaltern) 동유럽'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에까지 이르지 못했다.<sup>8)</sup>

### III. <별 볼일 없는 사람들>과 동유럽인들의 실재적 욕망

그렇다면, '동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실재적으로 그린 작품은 없을까?' 켈 로치 같은 거장이 아무리 동유럽 이주민들의 입장에 공감한다 해도, 외부인의 시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 내부인의 시각을 가진 그곳 출신 감독이라면 동유럽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단초는 카자흐스탄의 신예 감독 뚜레바예프(Nariman Turebayev)의 2003년 작 <별 볼일 없는 사람들, Malenkie Ljudi>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9)</sup> 동유럽 출신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카자흐스탄 출신의 뚜레바예프는 서유럽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험의 폭과 깊이가 다른 구(舊)사회주의 진영 사람들이 자

---

7) Joanna Rostek and Dirk Uffelmann, 'Can the Polish Migrant Speak? The Representation of "Subaltern" Polish Migrants in Film, Literature and Music from Britain and Poland,' in *Facing the East in the West: Images of Eastern Europe in British Literature, Film and Culture*, ed, Barbara Korte, Eva Ulrike Pirker and Sissy Helff, International Forschungen zur Allgemeinen und Vergleichenden Literaturwissenschaft, Rodopi, Amsterdam-New York, 2010, 311-334

8) 'Can the Polish Migrant Speak? The Representation of "Subaltern" Polish Migrants in Film, Literature and Music from Britain and Poland'(Facing the East in the West: Images of Eastern Europe in British Literature, Film and Culture, ed, Barbara Korte, Eva Ulrike Pirker and Sissy Helff, International Forschungen zur Allgemeinen und Vergleichenden Literaturwissenschaft, Rodopi, Amsterdam-New York, 2010, 318.

9)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영화 분석은 다음 논문을 전적으로 참조한 것임을 밝힙니다. David Clark, "Going West: Migration and the Post-Communist World in Recent European Film," *Cultural Politics*, Vo.1, Issue.3, 279-294, (2005).

본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겪으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욕망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주인공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타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가는 벡(Beck)과 막스(Max).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해가는 알마타에서 두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잡동사니를 팔아 큰 성공을 거두겠다는 꿈을 안고 살고 있다.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커다란 세일즈 가방에는 현대적으로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온갖 플라스틱 잡동사니를 넣고 다니면서 판다. 이 둘은 자유 시장 경제의 법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자신들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막스의 대사는 오히려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이 문명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명은 가상으로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잡지에서, 영화에서. 그런데 실제 생활에는 없다. 이 문명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부재상태이다. 단순히 말해 존재하지 않는다.<sup>10)</sup>

‘자본주의가 TV에서, 잡지에서, 공공연히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부와 행복’은 카자흐스탄에 없을 뿐 분명 다른 곳, 즉 서구에는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막스의 계속 이동하는 욕망 속에 잘 드러난다. 영화가 종반을 치달아 갈 무렵 두 주인공이 일하던 회사는 망하게 된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회사가 생산해내는 물건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이 막스는 독일어를 배우고 비행기 표를 사고 비자를 얻는 등 비밀리에 독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막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카자흐스탄이라는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이지, 자본주의라는 전체 시스템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이 아닌 다른 서구의 어떤 나라, 예를 들어 독일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을 찾아 쫓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이라는 잘못된 공간에 있어서 문제인 것이지 부자가 되겠다는 꿈 자체가 환상이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10) *Ibid.* 282.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켈 로치의 카롤보다는 뚜레바예프의 막스가 좀 더 개연성 있는 동유럽 이주민들의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켈 로치의 <자유로운 세계>로 돌아가자면, 폴란드 출신의 이주 노동자 카롤이 앤지로 상징되는 영국 자본주의 세계에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다고 해서, 분명 실망해 떠난 폴란드로 다시 돌아가기 보다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영국 내 다른 직장, 다른 지역을 헤매거나 아니면 다른 ‘서구’ 국가 어딘가를 향해 떠났을 확률이 더 높다. 동유럽 이주민들에게 폴란드는 서구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아 보게 해주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서구보다 더 문제 많은 현실의 공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른 서유럽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켈 로치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비서구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애착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서구적인 것, 자본주의 것이 최고의 것이며 그 밖의 비서구적인 것은 덜떨어진 야만의 것/비문명화된 것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전파되는 상황 하에서 비서구인 자기 나라의 것과 동일시하고 거기에 애착을 갖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1)</sup>

오히려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다른 ‘서구’에 대한 환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쓴 맛을 보고도 그것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저항하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환상을 품고 체제의 착취 시스템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앤지처럼, 카롤도 또 다른 환상을 계속 찾아 영국이 아닌 제2, 제3의 서구로 떠나는 것이 좀 더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었을 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비자가 거부되자 이탈리아로 떠날 생각을 하는 뚜레바예프의 막스처럼 말이다.

#### IV. 나가며: ‘환상 횡단하기’에서 ‘환상 중단시키기’로

<자유로운 세계>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라는 켈 로치 감독의 영

---

11) David Clark, “Going West: Migration and The Post-Communist World in Recent European Film,” *Cultural Politics*, Vol. 1, Issue 3, 279-294, (2005).

국민에 대한 각성의 부름(wakeup call)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동유럽 이주민 영화를 다룬 서유럽 감독의 작품들은 동유럽 이주민들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 이주민들의 '이주 환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체제 차원에서 작동하는 환상의 문제를 개인 차원의 환상 문제로 환원시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반면 켈 로치 감독은 이런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 차원에서 해결돼야 하는 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주 영화의 관점보다는 진일보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각성의 부름이 영국인들 혹은 서유럽인을 향한 뿐, 동유럽 인들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아쉬움이 남는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앤지 같은 영국 사회 내의 노동자 계급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카롤 같은 동유럽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켈 로치의 <자유로운 세계>에서는 자본주의 경험의 결과 모양이 다른 동유럽에서 생성되는 자본주의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은 부재한다. 처음부터 아예 이들이 욕망하는 바는 무엇인지 제대로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뚜레바예프의 <별 볼일 없는 사람>에서 나타나듯, 이제 막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한 구(舊)소비에트 진영에서 신생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시키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은 사실 더 큰 파급력이 있는데도 말이다. 영화 속 주인공 막스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TV나 잡지에서 주장하는 '부'의 이미지는 카자흐스탄에만 가상으로만 존재할 뿐, '서쪽'에는 실제로 있다고 믿는 구(舊)사회주의권의 자본주의 환상도 다룰 수 있는 각성의 부름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그런 각성의 부름이 자동적으로 환상을 깨트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한양대학교 narodna21@hanmail.net



■ 위크샷 ■

## 〈영광의 날들(Indigène, 2007)〉에 나타난 북아프리카 출신 군인의 정체성: 프랑스와 식민지 사이에서 정체성 만들기

신 동 규

### I. 머리말

2006년 프랑스에서는 한편의 영화와 함께 식민지 시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대중적인 청원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1959년 알제리 독립을 계기로 권리를 박탈당한 아프리카 출신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을 프랑스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었다.

공화국 대통령 귀하

1명의 프랑스인 “상이용사”당 3명의 세네갈 상이용사와 11명의 모로코 상이용사.... 1명의 프랑스인 “연금수혜 참전용사”당 2.5명의 세네갈 참전용사와 7.5명의 모로코 참전용사.... “90일간 전투부대”에 배치된 1명의 프랑스인당 5.2명의 말리인, 7.3명의 알제리인 그리고 26명의 캄보디아인... 이것은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프랑스 제국에 속했던 25개국 출신 “원주민” 참전용사들의 현재 상황이며, 우리 공화국의 가장 큰 추문 중의 하나이다. 이 호소는 단지 식민주의적 계산을 끝내고 공화주의적 계산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전투 중 평등했던 이들에 대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¹

이 호소문은 영화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식민지적 관행을 청산하고 공화주의적 평등주의의 확립을 강조하는 이 호소문은 이 영화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을 위한 정치적 요구를 담은 문화 매체의

1) Appel pour l'Égalité des droits entre les anciens combattants français et coloniaux.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웅변한다. 이 영화는 바로 2006년 9월 27일 프랑스에서 개봉한 라시드 부샤렙(Racide Bouchareb) 감독의 영화 〈Indigènes〉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제목인 〈영광의 날들(Days of Glory)〉로 알려졌다.

프랑스어 원제 〈Indigènes〉은 프랑스 제국(Empire française)의 식민지 출신 군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원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6년 칸느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프랑스 군대 내의 이방인들을 연기한 북아프리카 출신의 주연 배우들의 열연이 보여주는 예술성을 넘어서 파리 태생의 알제리계인 부샤렙 감독이 프랑스 사회에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 군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종전 60여년 후 거의 잊힌 ‘원주민(Indigènes)’이라고 불렀던 이들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일종의 기억하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샤렙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프랑스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매체의 역할을 했다. 특히 2005년 방리유의 사태가 프랑스에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고발했다면, 이 영화는 이 불평등이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II. 전쟁에 대한 또 하나의 기억/기념 방식 : 『영광의 날들』과 이방인들

1944년 8월 25일 파리의 해방은 동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결과물로 인식되곤 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파리 해방의 길을 열었다는 논리가 일반화된 이유는 바로 이 작전에 참여했던 연합군이 파리 서쪽의 브르타뉴 지방과 프랑스 북서 해안지방을 해방시켰으며, 특히 미 보병 4사단과 필립 르클렉 드 오프클로끄(Philippe Leclerc de Hauteclouque) 장군 휘하의 프랑스 제2기갑사단이 상륙작전 이후 파리로 진격하면서 수도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영광’의 노르망디 상륙작전-파리수복-독일의 항복으로 이어지는 도식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의 역할이 강조된다. 더욱이 각각의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도식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게다가

가 1962년 존 웨인(John Wayne), 헨리 폰다(Henry Fonda), 로버트 미첨(Robert Mitchum) 등이 주연한 <지상 최대의 작전(The longest day)> 이나 1999년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가져다준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 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독항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는 기념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장군의 1944년 8월 25일 파리 시청 연설은 이러한 역사적 해석의 가능성을 염두해 둔 정치적 대응이었을까?

파리! 능욕당한 파리! 파괴된 파리! 학대받은 파리! 그러나 해방된 파리! 스스로 해방된 [파리], 프랑스 군대의 협력과 프랑스 전체의 협력과 지지와 함께, 싸우고 있는 프랑스, 단 하나의 프랑스, 진정한 프랑스, 영원한 프랑스의 협력과 지지속에서 민중에 의해 해방된 [파리]!<sup>2)</sup>

‘프랑스에 의해 해방된 파리’를 강조하는 드골의 연설문은 아마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드골은 이 연설문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보다는 1944년 8월 15일부터 시작된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한다.

승리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의 선봉대는 포화속의 파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탈리아의 위대한 프랑스 군대는 프랑스 남부 지방(Midi)에 상륙했으며 빠르게 발레 뒤편(Vallée du Rhône)까지 올라갔습니다.<sup>3)</sup>

드골은 프로방스 상륙작전 이후 지방의 주요도시가 해방된 시점인 1944

2) Discours de Charles de Gaulle, 25 août 1944.

3) *Ibid.*

년 9월 12일이 되어서야 연합군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치하했다. 샤이오 공에서 행한 연설에서 드골은 첫 번째로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까지 진출했던 독일군을 ‘혹독한 전투’에서 소탕한 소련, 두 번째로 ‘유럽을 구원해준’ 미국, 세 번째로 나치에 저항한 ‘용감한 국가들(vaillantes nations)’라고 칭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등 연합국에게 감사를 표했다.<sup>4)</sup>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렇다면 8월 25일 연설문에 언급된 프로방스 상륙작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은 8월 7일 서부 해안 도시인 브레스트에 도착했으며, 8일에는 파리로 향하는 길목인 르망을 독일군으로부터 되찾았다. 그러나 파리가 프랑스의 북쪽 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전 국토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남쪽에서의 군사작전이 필수적이었다. 이것은 8월 15일 프로방스 상륙작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즉 프랑스 남부로부터 북진하는 연합군은 8월 22일 그르노블, 8월 23일 툴롱, 8월 28일 마르세이유와 니스, 9월 3일 리옹, 9월 11일 디종 등 지방의 주요도시에서 독일군을 축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보르도를 위시한 서남부 지역의 독일군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가 주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해 프로방스 상륙작전에서 프랑스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을 만 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프로방스 상륙작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프로방스 상륙작전은 프랑스군과 미군이 주축이 되었으며, 특히 미군의 두 배에 이르는 약 260,000명의 병력을 투입한 프랑스군의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통해 프랑스 남부지역에 진출한 프랑스 군대의 90%가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 이중 48%가 식민지에 정착한 유럽계 백인이었으며 나머지는 소위 ‘원주민’으로 분류되는 식민지 출신이었다.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프랑스군의 일원이었다. 드골은 1944년 6월 6일 런던에서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에 발표한 연설문에서 인종과 출신에 상관 없이 단일한 목표를 향한 프랑스인의 ‘의지(volonté)’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Discours de Charles de Gaulle, 12 septembre 1944.

프랑스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nation)와 제국(empire)에 단지 하나의 같은 의미만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같은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sup>5)</sup>

그러나 대중적인 동원과 군대의 규율 아래 통제를 가능하게 했던 통합의 기술이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식민지 출신의 군인들은 백인 군인들과 뒤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들은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는 배제되었다. 8월 25일 파리에 입성하는 연합군의 행진에서 식민지 출신 유색인 군인들의 - 특히 흑인- 자리는 없었다. 드골은 프랑스 군인들이 파리 탈환 작전을 주도하기를 원했고, 영국군과 미국군의 지휘부는 백인으로만 편제된 부대가 파리에 입성하는 것을 전제로 드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미국은 전선에서 흑백 인종분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에 주둔한 기갑사단에는 세네갈 등의 식민지 출신의 흑인 병사가 40% 가량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인으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편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연합군은 우선 흑인 병사를 백인 병사로 대체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백인처럼 보이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병사들로 대체하는 타협안을 승인했다. 이렇게 프랑스는 파리를 스스로 해방시켰고, 미국과 영국은 백인들의 만든 승리라는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전부터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게 항복 선언을 할 때 까지 17,000여명의 세네갈 병사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박탈당했다.

부사렘의 〈영광의 날들〉은 바로 이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알자스 지방까지 진격하는 프랑스 군대의 북아프리카 출신 군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1943년 알제리의 시골마을에서 “독일 점령으로부터 프랑스를 해방시키자. 프랑스 깃발을 우리의 피로 물들이자!”라고 선동하는 노인을 따라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원입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같은 해 모로코에서 모집된 북아프리카인 부대와 알제리 동북부의 세티프에서 징집된 병사들이 1944년 이탈리아의 전선에서 만나게 된다. 이들의 첫 번째 전투는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지며, 승리에 도취한 이들은

---

5) Discours radiodiffusé de Charles de Gaulle, 6 juin 1944.

군함을 타고 프랑스로 이동하면서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부른다. 1944년 8월 프로방스에 도착 한 후 프랑스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아프리카 출신의 군인들은 10월에 발레 뤼 론 지역에 이르고, 11월에는 로렌지방의 보쥬(Vosge)도에 도착해 영화 속에서의 마지막 전투를 수행한다. 이러한 전개는 드골이 1944년 8월 15일 연설에서 강조한 프로방스 상륙작전과 일치한다.

부샤렙이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이 시기[제2차세계대전]에 관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만 1940년에서 1944년 사이 프랑스를 위해 싸운 60만 명의 병사의 존재, 아프리카인 부대의 존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sup>6)</sup>고 단언하듯, 그는 신화화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야기를 거부하면서 ‘보잘 것 없는’ 새로운 영웅을 통해 잊힌 이야기를 현재화했다. 1944년 드골이 프랑스 주도의 파리 해방을 위해 아프리카 출신 병사들을 배제하는 한편 연합군 내에서 프랑스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보다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강조했다면, 60여년 후 부샤렙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부터 이어지는 백인들의 승리 이야기가 아닌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군인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끌어내고 있다. 드골은 제국(empire)에 속한 식민지인들의 정체성을 애국심에 기반을 둔 민족정체성과 일치시키기 위한 선동을 하면서 ‘배제된 자’ 들이 원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차이’와 ‘다름’을 은폐시켰으며, 이 ‘배제된 자’ 들에게 끊임없이 애국심을 강요하면서 국가로 포섭했다. 반면에 부샤렙은 〈영광의 날들〉을 통해 북아프리카인 들에게 있어서 프랑스라는 조국이 가지는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통해 부샤렙은 ‘배제된 자’ 들의 실체를 보여줌과 동시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대표되는 미국식 역사기억/기념 방식에 도전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1944년 드골이 의도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의 언어에서 제외시켰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드골은 실제로 배제된 자들을 국가 속에 통합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선동구호를 이용하였다면 부샤렙은 그 허구성을 드러냈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 식민지 출신 군인들의 정체성

6) R. Bouchareb, interview, TF1, 27 septembre 2006.

조운경은 「알제리를 다룬 영화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에서 ‘원주민’이라고 불리우는 식민지 출신 병사들의 정치적 권리 박탈을 아감벤이 말하는 ‘헐벗은 삶(La vie nue, nuda vital)’<sup>7)</sup>을 통해 설명한다. 즉 프랑스인들은 그들이 “적과 싸울때에만 그들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치적 죽음을 선고받은, 즉 생물학적으로만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의 플롯 분석을 통한 조운경의 주장은 프랑스와 그 식민지 출신 병사들과의 갈등을 잘 설명한다. 게다가 ‘백인들만의 승리’로 기념되기를 원했던 1944년 8월 25일 파리 해방의 상황을 통해 이 논리를 백인지배 구조로부터 권리를 빼앗긴 자들과 권리를 빼앗은 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8)</sup>

그러나 한편 식민지인들이 스스로 프랑스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프랑스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군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행해지는 훈육 과정에서 볼 수 있다.<sup>9)</sup> ‘배제된 상태’에 놓인 식민지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규정하는 모습은 도덕 체계(ordre moral)에서 타자를 조종하면서(conduire quelqu’un) 국가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삶의 방향을 설정/통제하고 체제를 - 영화의 내용상 식민지/피식민지 지배구조- 강제하는지 보여주며<sup>10)</sup>, 개인들은 그 방식에 따라 스스로의 어떻게 행동을 규율화하고, 어떻게 이러한 행위들을 스스로 정당화 하는지 보여준다. 여기에는 푸코의 통치성(gouvernementalité)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영광의 날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체성 형성은 합리적 국가이성이 만들어낸 물적토대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의구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내재되어있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 확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치

7) 조운경의 번역을 따름. 이 아감벤의 개념은 ‘헐벗은 삶’으로 번역 되기도 함.

8) 조운경, 「알제리를 다룬 영화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추방된 사람들>(2004)과 <영광의 날들>(2006)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2집 (2010), 697.

9)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Paris: Editions Gallimard, 1975), 222.

10)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aris: Editions Gallimard, 2004), 125.

성이 구현되는 사적영역에서 개개인들이 통치논리를 따르는 과정은 일차적으로 각 개인의 내면갈등을 수반한다. 즉 부사렙의 영화에서는 규율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는 개인들의 모습을 통해, 도덕체계에 순응하고 질서에 편입되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되, 이 질서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드러내준다.

2006년 제59회 칸느 영화제는 〈영광의 날들〉에 등장한 4명의 북아프리카 병사와 1명의 유럽계 북아프리카 정착민(pied noir) 중사 역할을 한 배우들에게 공동 남우주연상을 수여했다. 네 명의 북아프리카 병사로는 사이드 역의 자멜 드부즈(Jamel Debouze), 메사우역의 로췌디 켄(Roschdy Zem), 야시르 역의 사미 나세리(Samy Nacéri), 압텔카데르 역의 사미 부아질라(Sami Bouajila)가 등장한다. 이들을 이끌 하사관으로는 베르나 블랑강(Bernard Blancan)이 마르티네즈 역을 맡았다. 우선 사이드는 한쪽 팔이 없는 알제리의 가난한 목동으로 글을 읽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도보도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으로 충만한 병사로 조국을 구할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한다. 사이드는 알제리의 ‘순진한’ 자발적 지원병의 표상이다. 그러나 사이드가 입대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경제적인 처지였다는 사실이 영화 곳곳에 드러난다. 그의 어머니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이드의 할아버지를 언급하고 “너를 잃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참전을 만류해보지만 사이드는 조국을 지키겠다고 트럭에 몸을 싣는다. 그러나 무지하게 보이는 사이드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것은 이탈리아 전선에서 만난 알제리 출신의 하사 압텔카테르와의 대화에 나타난다.

압텔카데르: 어디에서 왔냐?

사이드: 비참함의 밑바닥에서.

압텔카데르: 군복을 입었으니 이제 너는 나와 같은 거야. 너는 우리와 같아. 우리는 한 가족이야. 군대... 그건 평등이거든.

정치적 공간인 식민지가 아닌 사회경제적 조건인 ‘비참함의 밑바닥’에서 왔다고 말하는 사이드의 인식에는 프랑스가 자신의 조국이라는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있다. 이것은 하나의 제국 안에 두 개의 불평등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군대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는 압델카데르의 언어는 군대 밖의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압델카데르 또한 군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는 한 프랑스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군복만을 입고 있을 뿐 결국 ‘이방인’이었다. 병영 내 일상에서 이들 북아프리카 출신 병사들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들의 조국인 프랑스인들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드러낸다. 이것은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 제국의 중심부의 문화와는 이질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프랑스인들은 프랑스가 그들의 조국임을 끊임없이 주입시킨다. 특히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병사들의 군가인 ‘아프리카인들의 노래’는 프랑스가 조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의 노래(Le Chant des Africains)

(1절)

우리는 아프리카의 밑바닥에 있었다.  
아름다운 햇살아래 승리자가 전진! 전진! 전진! 이라는 외침을 울리게 할 때  
우리의 피부색을 소중히 여기는 수호자들

(2절)

우리 제국(empire)의 안녕을 위해  
우리는 모든 탐욕스러운 자들과 싸운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위해 투쟁할 때  
배고픔과 죽음은 우리를 웃게 만든다.  
전진! 전진! 전진!

(후렴)

우리는 바로 멀리서 되돌아온 아프리카인들  
우리는 조국(patrie)을 구하기 위해 식민지에서 왔다.  
우리는 모두 부모와 안식처와 가정을 떠나왔고  
우리는 꺾이지 않을 열정을 심장에 담았다.  
우리는 우리의 프랑스 전체(notre France entière)의 아름다운 것  
밭을

높게, 자랑스럽게 들기를 원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깃발을 건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맞설 것이다.  
복을 올려라 이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멀리서 죽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아프리카인들이다.

이 노래는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병대가의 곡에 맞추어 부르던 모로코 사단의 노래에 1940년 펠릭스 브와이에(Félix Boyer) 대위가 새로운 곡을 붙여준 것이다. 이 노래 가사는 식민지의 역할을 조국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조국을 위해 아프리카인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식민지 출신 병사들은 프랑스가 조국이라고 주입하는 장교들 앞에서 압텔카데르가 말하듯 군대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었을까? 적어도 영화속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병사들은 군대에서 공동의 적인 독일을 위해 싸우는 한 그들은 프랑스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조윤경이 “그것은 드골이 피식민지들의 참전을 독려하며 내세운 명분이기도 했다”<sup>11)</sup>라고 강조하듯 사이드는 드골의 말을 빌려서 프랑스를 위해 참전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 하곤 한다. 바로 이 명분이 마그렙 용병 스스로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프랑스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규율화 시키도록 만드는 장치의 핵심이다.

그러나 영화속에 등장하는 여러 에피소드에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며, 북아프리카 출신의 병사들이 이미 그들이 살던 곳과 ‘조국’ 프랑스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럽계 북아프리카 정착민 중사인 마르티네즈에게 의지하면서 시골의 목동에서 병사로 거듭난 사이드는 프로방스에 상륙한 직후 흠냄새를 맡아 보면서 자신이 살던 곳의 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는 한편 프랑스 여성 앞에서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으면서 “나는 한 나라를 해방 시켰다.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비록 이전에 한 번도 본적이 없지만... 여기는 내 나라야”라고 비장하게 말한다. 그리고 “인샬라(Inch'Allah) 우리가 승리할거야”라

11) 조윤경, 위의 글, 677.

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다. “단지 너의 나라만이 너를 들뜨게 하니?” 라고 되묻는 이 여성의 반응은 -비록 냉소적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프랑스가 조국임을 세뇌해야만 하는 사이드의 처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프랑스는 ‘너의 조국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 입대를 결정한 야시르는 함께 참전한 동생 라르비와 함께 성당에 들어간다. 헌금함에서 동전을 훔치는 라르비를 향해 야시르는 “그들의 신은 많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생의 행동을 제지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본다. 그러나 동생은 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동생 라르비는 가장 적극적으로 프랑스가 자신의 조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인물이었다. 그것은 프랑스군 인들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그는 어릴 적 프랑스군에게 학살된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며 형에게 묻는다. 학살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지?” 야시르의 한마디 대답은 “평화회복(pacification)”이었다.

메사우는 프로방스에 상륙한 프랑스군을 환영하던 프랑스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 여성과 단둘이 방에 있던 메사우는 인기척 소리에 놀란다. 이 여성은 “독일군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라고 메사우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메사우가 놀란 이유는 독일군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제리 남자들이] 프랑스 여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 바로 알제리 식민지 남성과 프랑스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신분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후 메사우는 그녀와 결혼해 프랑스에 정착할 꿈을 꾸며 지낸다. 그러나 그녀가 보내는 편지는 메사우에게 전해지지 않으며 메사우가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검열을 받아 파기되고 만다. 결국 휴가를 떠나는 프랑스인들에게 불만을 품은 메사우는 휴가증 없이 그녀를 만나러 가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마지막 임무 수행을 위해 석방된다.

사이드가 막연하게 프랑스는 자신의 조국이라고 믿으며 프랑스군 소속의 병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반해 압텔카데르는 프랑스 병사로서 프랑스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참전을 통해 프랑스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승리 후 프랑스로 향하는 배에서 흑인병사에게 토마토 급식을 하지 않자 압델카데르는 지휘관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같은 깃발아래 같은 땅에서 같은 적을 상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토마토 역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독일군의 총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압델카데르의 항의로 모두 공평하게 급식을 받았지만, 결국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 11월 보쥬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보급 임무수행 중 소대장과 자신을 제치고 중사로 승진한 프랑스인 르후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대원이 지뢰를 밟아 사망하고, 상사로 승진한 마르티네즈가 심한 부상을 당하자 압델카데르는 부대의 지휘를 맡게 된다. 싸울 수 있는 병사는 압델카데르, 메사우, 야시르, 그리고 한쪽 팔이 없는 사이드 뿐 이었다. 미군을 도와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지만 압델카데르는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무강행을 결정한 다. 압델카데르는 말한다: “우리는 알자스에 들어가는 첫 번째 프랑스인이 될 거야. 우리가 미군을 도와 전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단언하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생존자들은 임무수행을 위해 전진하고 결국 독일군과의 교전 끝에 압델카데르만이 살아남게 된다. 위기의 순간 프랑스군의 총공세로 압델카데르는 살아남지만 프랑스군은 홀로 살아남아 독일군으로부터 마을을 지킨 그의 공로를 외면한다. 부대원 전원이 전사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 그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묻는 이는 없었다. 홀로 남은 그는 길에서 행군중인 다른 소대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입되었고 허탈하게 걸어가는 그를 몇몇 마을의 노인들이 치하할 뿐이었다. 주인공들의 마지막 전투는 이렇게 잊히고 알자스에 들어가는 ‘첫 번째 프랑스인’이 되기를 원했던 압델카데르의 꿈은 산산히 깨지고 만다.

마르티네즈는 유럽계 북아프리카 정착민의 후손으로 병사들에게 규율을 강요하면서 차별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식민지 출신 병사들과 갈등한다. 피에 느와(pied noir)인 그는 프랑스인 백인과 식민지 병사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특히 아프리카 병사들은 마르티네즈를 통해서만 그들의 애국심을 프랑스인에게 확인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마르티네즈는 식민지 병사들이 단지 군인으로만 인식한다. 이것은 프랑스인들과

마르티네즈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백인 병사들은 식민지 병사들을 비하하는 용어인 캄둥이(bougnoul)로 부르고, 지휘관들은 ‘원주민’이나 ‘이슬람교도’라고 식민지 출신 병사들을 비하하지만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상관에게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된다고 단호히 말한다. 마르티네즈에게 그들은 프랑스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원들(les hommes)일 뿐이었다. 그러나 마르티네즈는 북아프리카 병사들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는 알제리 출신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과 식민지 병사들을 차별화 한다. 그리고 늘 사이드의 아버지 같았던 그는 사이드가 이 사실을 알자 관계를 끊어버린다. 사이드는 자신들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마르티네즈가 그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혐오하지만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부상당한 마르티네즈를 돕다가 전사하고 만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프랑스인들과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누구도 프랑스인이 되기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영화속의 주인공들은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드는 마르티네즈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면서, 메사우는 프랑스 여성과 결혼을 통해, 압델카데르는 임무수행의 공적을 통해, 야시르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마르티네즈는 알제리 출신 어머니를 숨기는 것을 통해 프랑스인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들은 모두 드골이 피식민지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명분의 포로가 되면서, 군사적 품행과 성과를 통해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규율적 개인의 코드(codes de l'individualité disciplinaire)을 만들었다.<sup>12)</sup> 이것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조국을 위해 싸우는 병사로 규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전장에서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는 한편 이들은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한다.

---

12)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Editions Galimard, 1975), 222.

#### IV. 맺음말

영화는 2002년 국가자문위원회(Conseil d'Etat)<sup>13)</sup>가 1959년 알제리 독립으로 지급이 중단된 연금을 식민지 출신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이 조치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끝난다.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식민지 출신 병사들에게 부분적인 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1959년 12월 26일 공식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된 이후 국가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금 지급이 재개되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물가를 기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의 적게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리고 2006년 9월 25일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은 식민지 출신 병사들에 대한 연금 재평가를 발표하고 약 8만 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23개국의 식민지 출신의 제대군인들이 점차 프랑스인들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봄에 칸느 영화제에 소개되었던 부사령의 영화가 전국적으로 약 500여개의 상영관에서 개봉하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당시 자크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과 정부는 “평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연금의 평등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보르도의 행정재판소에서 1996년 2월 유로-지중해 협정에 근거해 6명의 모로코 출신의 참전용사들에게 연금 지급을 결정한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 또한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 결정으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참전용사는 연금 수혜자격이 생겼지만 여전히 세네갈 출신들은 제외되었다. 뷰샤렘의 〈영광의 날들〉은 식민지 출신 참전 용사들의 기억을 다시 프랑스 사회에 떠올리며 그 정치적 역할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겪는 정체성 갈등은 60여년이 흐른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식민지 출신의 이민자들과 그 2세대들은 사회에 포함되었지만 온갖 차별로 배제된 삶을 살고 있다. 결국 현재 방리유의 모습은 〈영광의 날들〉의 주인공들이 겪은 전쟁터와 같은 정체

13) Conseil d'Etat는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자문과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재판을 맡는 기구이다. 최고행정재판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기구의 본래의 임무는 자문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국가자문위원회로 번역했다.

성 투쟁의 공간이 아닐까?

창원대학교 jajusdk@naver.com

■ 역사 속의 이주, 이주 속의 역사 ■

## 정복의 신화, 이주의 기억 :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

홍용진

### I. 종족투쟁

1976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서 미셸 푸코는 16-17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역사적 담론인 ‘종족투쟁(lutte des races)’에 주목한다.<sup>1)</sup> 그에 따르면 종족투쟁을 강조하는 역사서술은 결속과 통치의 역사인 로마사의 전통과 달리 저항과 예언의 역사인 히브리적 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계약과 합의가 아닌 지배와 예속을 정치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는다. 즉 한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연속성과 정치적 합의보다는 서로 다른

1)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1976,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박정자 옮김(동문선, 1998)[Michel Foucault, «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 *Cours au Collège de France* (Gallimard/Seuil, 1997)].

프랑스어 ‘라스(race)’는 일단 말[馬]의 종자를 뜻하는 고불어 또는 게르만어인 ‘haraz’, 또는 ‘razza’에서 유래한다. 여기에 개념이나 이념을 뜻하는 라틴어 ‘ratio’의 의미가 부가되어 동질적인 모습(즉 변하지 않는 본질)을 나타내는 일군의 가족집단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14세기까지 이러한 의미를 지녔던 ‘race’는 1480년에 와서야 “동일한 가족 또는 인민들의 선조와 후손 전체”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고 이내 16세기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영어 단어도 16세기에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온라인 어원사전을 참조하였다: <http://www.cnrtl.fr>(프랑스어); <http://www.etymonline.com>(영어).

‘race’가 현재는 통상 ‘인종’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16-18세기에는 ‘race’의 구체적인 예들로 프랑크족(Francis)이나 골족(Gaulois) 등이 제시되고 있다. 즉 현재의 ‘인종’의 의미와는 차이를 지니며 이러한 예들에는 ‘종족’이라는 번역어가 더 어울린다. 그럼에도 번역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종족들(races)간에 이루어진 폭력과 이로 인한 정치체의 단절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종족’이라는 용어에는 19세기에 등장한 생물학적인 의미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역사적·정치적 균열을 의미하기 위한 ‘종족투쟁’, 또는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한다.<sup>2)</sup> 즉 푸코는 현재 ‘인종’이라고 번역되는 ‘race’가 16-17세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의미는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의 넓은 맥락 속에서 지배와 예속, 또는 지배에 대한 저항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두 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푸코는 ‘인종주의’보다도 ‘종족투쟁’이 시간적인 차원에서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나 먼저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족투쟁’이라는 용어는 사회를 종족들의 구성으로 보는 관점과 역사를 투쟁의 갈등의 점철로 보는 관점이 결합한 결과다. 흥미롭게도 19세기에 들어와 이 두 관점은 다양한 변형태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당시 프랑스 역사가들이 제시한 ‘계급투쟁’ 개념의 고안이었다.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Guizot, 1787-1874), 오귀스탱 티에리(Augustin Thierry, 1795-1856),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 1797-1877)와 같은 부르주아 정치-역사가들에 의해 채택된 이 ‘계급투쟁’은 기존의 ‘종족투쟁’을 부르주아사회에 맞게 변형시킨다. 이들에 따르면 봉건제 출신의 귀족들은 전통적인 지배-착취자인 프랑크족 출신이고 12세기 코뮌운동의 후예이자 프랑스 혁명의 주역인 부르주아는 피지배-피착취자로서 골족 출신이다. 이들에 따르면 프랑스의 역사는 평화로운 원주민 골족이 사나운 전사인 프랑크족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시작되었고 골족의 후예인 부르주아가

---

2) 미셸 푸코, 같은 책, 85-107(「1976.1.28 강의」) [Michel Foucault, *Ibid.*, 57-74]

프랑크족의 후예인 귀족들을 타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sup>3)</sup> 즉 지배-피지배의 종족투쟁은 착취-피착취의 계급투쟁으로 전화되며 이는 곧 마르크스가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개념을 고안하는 바탕을 제공한다.<sup>4)</sup>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를 전복시키는 투쟁과 단절의 혁명사, 그것은 부르주아를 정당화 하건, 프롤레타리아를 정당화하건 역사에 균열과 단절을 도입하는 관점들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푸코는 ‘종족투쟁’과 관련하여 투쟁보다는 ‘종족’의 순수성 보전과 생존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종족/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담론이 등장한다고 본다. 위의 관점에서 국가는 지배-착취 종족/계급의 무기 또는 도구였다면 여기에서 그것은 “종족의 순수성과 우월성 그리고 그 통합을 보장하는 도구”<sup>5)</sup>가 된다. 나치와 스탈린주의는 투쟁의 담론을 끌어오지만 그것은 피지배종족의 지배종족에 대한 투쟁이 아닌 다른 종족들에 맞선 한 종족의 내적 통합성과 획일화를 지향한다.

결론적으로 푸코에게 ‘종족투쟁’의 두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 번째가 분열된 종족들 사이의 정치투쟁이라면 두 번째는

3) Corinne Pelta, *Le romantisme libéral en France: 1815-1830. La représentation souveraine* (Paris: Harmattan, 2001), 139-141. ‘계급투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수아 기조로 알려져 있다: François Guizot, “Cours d’Histoire moderne-7e leçon-30 mai 1828”, *Cours d’histoire moderne* (Paris: Pichon et Didier, 1829), 29: “코뮌 해방과 관련한 세 번째 가장 큰 결과, 그것은 계급투쟁, 사실 자체를 구성하고 근대사를 가득 채우는 투쟁입니다. 근대유럽은 사회의 다양한 계급들 간의 투쟁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4)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에티엔 발리바르는 계급인종주의에 대한 글에서 인종(race)과 계급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Étienne Balibar, “Le «racisme de classe»”, Étienne Balibar &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e. Les identités ambiguës* (Paris: La découverte. 1988 [1997]), 272-302.

계급투쟁 개념에 영감을 받긴 했지만 당연하게도 마르크스는 당대 부르주아 정치가이기도 했던 이들에게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티에르, 이 난쟁이 괴물은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프랑스 부르주아지를 흘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프랑스 부르주아지 자신의 계급적 부패에 대한 최고의 지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정치가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한 역사가로서 자신의 거짓말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의 공적생활에 대한 연대기는 곧 프랑스의 불행의 기록입니다. ...” (카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임지현·이종훈 옮김(소나무, 1987[1993]), p.321.

5) 미셸 푸코, 위의 책, 102[Michel Foucault, *Ibid.*, 70-71].

단일하다고 주장되는 종족을 위한 생존투쟁이다. 전자가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의 균열로 점철된 정치적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후자는 순수성과 단일성의 역사적 신화 속에서 생물학적 생존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통찰 이후 푸코는 16세기 이후 절대왕정의 국가주의 담론에 저항하는 귀족세력들의 분열적 역사담론, 특히 17세기 말부터 진행된 민족 이질성과 관련한 불랭빌리에(Henri de Boulainvilliers, 1658-1722)의 역사담론에 초점을 맞춘다. 푸코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는 노르만 족의 정복과 노르만/색슨 간의 종족적 이원성이 역사의 본질적인 분절지점이었다면, 반대로 프랑스 역사담론에서는 17세기까지 민족체에 어떠한 이질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골족과 트로이인 간에, 그리고 골족과 게르만족 간에, 또 골족과 로마인들 간 등에 이루어진 전설적인 친족체계는 권력이행의 연속성과 민족체 내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동질성을 보장해줄 수 있었다.”<sup>6)</sup>

## II. 중세 프랑스: 동질성 담론의 역사?

이상과 같은 푸코의 입장을 크게 반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노르만인의 잉글랜드 정복은 곧 헨리 2세(1154-1189)의 거대왕권을 탄생시켰다. 이는 강력한 왕권이 정복자였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미화시키기는커녕 잉글랜드 인민들에게 플랜태저넷/플랑타주네(Plantagenet) 왕조가 정복자 이주 왕족이라는 사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즉 잉글랜드 왕은 까딱하면 파국적인 폭군이 되지 않도록 늘 고위성직자와 앵글로-색슨 귀족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토마스 베케트 암살 이후 그의 동료 존 오브 솔즈베리(John of Salisbury 1120-1180)가 집필한 『정치체론(Policraticus)』,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의회로 이어지는 12-13세기 잉글랜드 역사의 전개는 바로 솔즈베리 서약과 둠즈데이북으로 대표되는 정복군주와 관련된 역사적 기억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잉글랜드에 비견할만한 급격한 이민족

6) 미셸 푸코, 같은 책, 153[Michel Foucault, *Ibid.*, 110-111](번역은 필자가 문맥에 맞게 교정하였다).

정복자의 도래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11-13세기 중세인들에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이미 잊혀져버린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다. 게다가 프랑크인들의 갈리아 정착은 다른 게르만 부족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또 덜 소란스럽게 이루어진 편이었다. 노르만 정복에 비견할만한 급격하고도 폭력적인 이민족의 이주가 프랑스에는 없었으며 설사 프랑크왕국이 정복자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하더라도 프랑크족의 정복적 성격은 프랑스가 아닌 작센을 중심으로 한 게르마니아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더군다나 프랑크족의 이동과 비교했을 때는 그 직전에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진 켈트인들에 대한 앵글로족과 색슨족의 거대한 침략의 물결이 보다 더 소란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즉 푸코의 지적대로 프랑스에서는 17세기까지 이전까지, 통상 개설서에서 중세로 분절하는 시기(5-15세기)에는 이질적인 민족보다도 친족관계에 의한 동질성을 더 드러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중세 프랑스의 역사서술과 관련하여 푸코의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13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프랑스 왕권은 자신의 다양한 도래기원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의 동질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프랑스에서는 왜 왕권을 중심으로 친족적 동질성으로 수렴되는 기원의 다양성을 주장했을까? 또 같은 취지에서라면 프랑스 왕조의 외부 도래설 또는 이주설 자체는 왜 이야기 되었을까? 또 이러한 다양한 역사담론들은 푸코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듯이 과연 동질성만을 말하고 있을까?<sup>7)</sup> 불랭빌리에의 역사담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푸코는 담론과 현실 사이의 상호관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중세 프랑스 역사서술에서 등장하는 상상의 또는 전설적인 이민족 이동에 대한

7) 미셸 푸코, 같은 책, 141: “나는 중세 이래, 아니 거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에서 통용되던 하나의 설화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한다. 그 설화에 따르면 프랑스인은 프랑크족의 후예이고, 프랑크족은 바로 트로이인들이었다. (중략) 나는 이 설화가 중세 때 가지고 있던 의미나, 그 국가 창설과 항해의 설화가 수행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은 없다.”

주제들을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일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8)</sup>

솔직히 이러한 질문들에 만족할만하게 대답할 사료들은 한편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방대하다. 즉 한편으로 모든 역사서술들이 외부 이주설 또는 도래설들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간단한 이주의 사실들과 계보만을 언급하고말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맥락을 살펴보기는 힘들다.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다양한 역사서술들이 이러한 이주설들을 모두 제각각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리와 종합을 힘들게 한다. 일단 본 글에서는 12세기 말 ~ 13세기 초에 ‘프랑스인의 이주’에 대한 전설을 본격적으로 유포한 리고르(Rigord, 1145?-1207)와 기욤 르브르통(Guillaume Le Breton, 1165-1226)의 저술들을 당시의 상황 속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들이 활동한 시대는 바로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적 봉건제를 약화시키고 프랑스 왕의 영향력을 왕국 전체로 확산시킨 필리프 2세 치세(1180-1223)였다. 필리프 2세의 정치적 과제는 지방 봉건제후들 및 잉글랜드왕, 신성로마제국황제에 대항하여 프랑스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그 영향력을 프랑스 전역에 확대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은 왕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이후 중세 내내, 나아가 르네상스 시기까지 유행할 새로운 역사담론들을 창안하였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인들의 ‘트로이 기원설’이었다.

### Ⅲ. 갈리아-프랑크의 트로이 기원설: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

사실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왕국은 프랑크족의 갈리아 이주와 함께 시작되었다. 개설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프랑스, 즉 로마시대 갈리아 지역에는 켈트인들, 즉 곁족이 살고 있었고 격렬한 저항 후에 기원전 50년 카이사르에 의해 정복된

---

8) 물론 이러한 검토는 종교전쟁이 치열했던 16세기 역사서술과 관련하여 더더욱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16세기까지 다루기는 힘들다.

이후 점차 로마화 되어 갔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곳에는 이후 게르만 왕국들이 들어섰다. 초기에는 이베리아반도에서 갈리아 남부인 아퀴타니아를 차지하는 서고트왕국이 들어섰고 로마제국 멸망 이후에는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서 이주한 프랑크족이 북부 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팽창하여 서고트 왕국을 밀어내고 전유럽으로 그 세력을 팽창시켜 나갔다. 하지만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이상과 같은 건조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 왕정을 중심으로 한 기원의 신화에 목말라하던 이들은 켈트인들의 기원과 프랑크인들의 기원을 찾아 나섰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근거에 입각하여 이 두 종족을 트로이라는 하나의 기원으로 소급시켰다. 물론 이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Ἰλιάς*/Iliás)』 보다는 로마시대 시인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 기원전 70-19)의 『아이네이스(Aeneis)』를 통해 더 잘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 이전에 프랑스의 ‘트로이 기원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7세기 중반 『프랑크인들의 역사(Liber Historiae Francorum)』를 저술했다고 알려진 프레데가르(Fredegar)였다.<sup>9)</sup> 그의 간략한 기술에 따르면 아이네이아스(Aeneias)의 사촌인 프랑쿠스(Francus)<sup>10)</sup>가 아이네이아스와 마찬가지로 일군의 사람들과 멸망하는 트로이를 탈출하여 라인강과 다뉴브강 사이의 일대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곳의 야만족과 투쟁하여 시캄브리아(Scambria)라는 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은 메로베우스 왕조의 직계조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네이아스가 로마의 기원이 되듯이 프랑쿠스는 프랑스의 기원을 이루며 역사적으로 로마와 프랑스는 가족 서열상 동등한, 먼 친척이 된다. 프레데가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7세기 중반에 이러한 창조적(?)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당시의 로마제국, 즉 동로마제국의 정치상황

9) Colette Beaune, *Naissance de la nation France* (Paris: Gallimard, 1985), 19-21.

10) 라틴어로 프랑쿠스이지만 이후 중세 불어로는 ‘프랑시옹(Francion)’으로 알려졌다.

및 대외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프레데가르의 역사서술은 명확히 메로베우스왕가의 프랑크왕국을 (동)로마제국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으며 이러한 과감한 기술은 동로마제국이 당시 이슬람의 팽창과 내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카롤루스의 대관식과 마찬가지로 지중해지역의 오지인 서유럽 프랑크왕국은 늘 동로마제국 패권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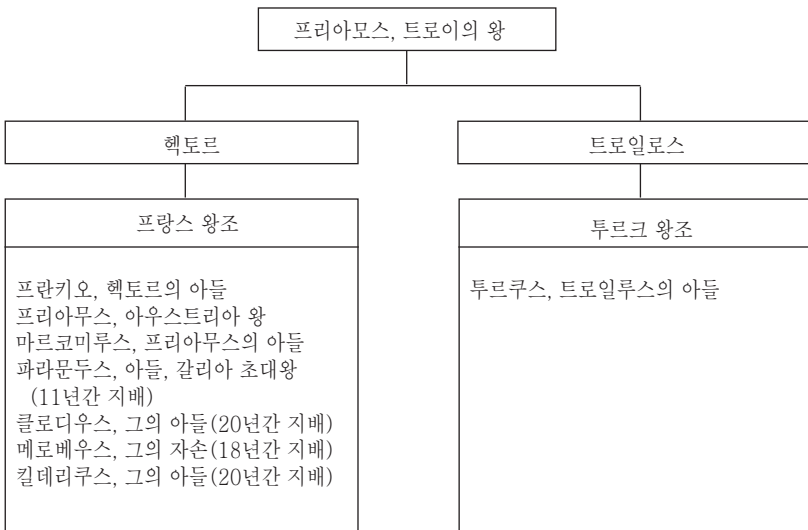
하지만 프란쿠스 전설은 동로마 제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은 9-11세기 기간 동안 등장하지 않았고 한참 동안 프랑스의 역사서술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2세기말 ~ 13세기 초에 들어서야 필리프 2세 시기의 역사를 서술한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에 의해 새로운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12)</sup> 먼저 리고르의 『존엄왕 필리프의 업적(Gesta Philippi Augusti)』을 살펴보도록 하자. 리고르가 트로이 기원설을 끌어들이는 곳은 놀랍게도 필리프 2세가 1186년 파리 시내 주요 거리에 대해 포장사업을 실시한 사실을 기술하는 대목이다.<sup>13)</sup> 리고르는 가장 기독교적인 왕(rex christianissimus) 필리프 2세와 파리지의 관계를 카페왕조와 파리지가 공유하는 유구한 역사로 확장한다. 그는 왕궁의 거처인 파리(Paris)가 예전에 루테티아(Lutetia)라고 불렀으나 트로이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파리스(Pâris)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불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를 실마리로 그는 프랑스왕가의 트로이 기원설로 이동한다. 프리아모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헥토르고 다른 하나가 트로일로스였다. 리고르의 상상 속에 이 두 형제는 각각 프랑스의 기원과 (놀랍게도) 투르크의 기원을 이룬다. 그는 헥토르의 후손들이 프란키오(Francio; 프랑시옹Francion), 프리아무스(Priamus; 프리암Priam), 마르코미루스(Marcomirus; 마르코미르Marcomir), 파라문두스(Pharamunds; 파라몽Pharamond),

11) 게오르크 오스트로고르스키, 『비잔티움 제국사 324-1453』, 한정숙·김경연 옮김 (까치, 1999), 81-94.

12)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저작은 19세기 말 역사가 앙리-프랑수아 들라보르드에 의해 편집, 출판되었다. Henri-François Delaborde (ed.), *Oeuvres de Rigord et de Guillaume le Breton. Historiens de Philippe-Auguste*, 2t. (Paris: Renouard, 1882).

13) 이하 리고르의 트로이 기원설에 대해서는 Henri-François Delaborde(ed.), *Ibid.*, 54-59.

클로디우스(Clodius; 클로디옹Clodion), 메로베우스(Meroveus; 메로베Merovée), 킬데리쿠스(Childericus; 쉐데릭Childeric)으로 이어진다고 기술한다. 여기에서 파라문두스를 제외하면 마르코미루스 이후의 왕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프랑크족의 족장들이었고 킬데리쿠스는 프랑크왕국의 초대왕이었던 클로도베쿠스(클로비스)의 아버지였다. 다른 한편으로 트로일로스의 아들은 투르쿠스(Turchus)라 불리며 당시 셀주크 투르크의 조상을 이룬다. 리고르는 다음과 같은 도표로 프랑스왕가의 계보를 간명하게 제시한다.



헥토르의 자손들은 프랑크족 뿐만 아니라 게르만족 전체의 조상으로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달족, 노르만족은 모두 프랑크족에서 분기한 종족들이다. 이와 더불어 리고르는 프리아모스의 또 다른 자손들로 브르타뉴인들의 기원이 되는 브루투스(Brutus), 이탈리아인들의 기원이 되는 에네아스(Eneas; 아이네이아스)를 언급한다. 전자는 당대의 대 브리타니아(잉글랜드)와 소 브리타니아(브르타뉴)에 정착하고 후자는 로마를 건설한다. 리고르의 기술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2만 3천명의 트로이 난민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갈리아 땅에 정착한 트로이의 공작(duc) 이보르(Ibor)의 존재다. 기원전 895년 그는 트로이인들과 함께 루테티아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하였고



파리스 왕자를 기러 도시의 이름을 파리(Paris)로 정하였다. 더불어 리고르는 파리스 왕자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파리아(Parisia)에서 유래하며 이는 ‘대담함(audacia)’을 의미한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이들 초기 갈리아인들은 곧 로마인들에 의해 정복을 당했고 이후 시캄브리아왕국에서 마르코미루스가 이끌고 나온 새로운 트로이인들, 즉 프랑크인들을 받아들여 현재의 프랑크왕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마르코미루스의 아들인 파라문두스는 프랑크왕국(갈리아)의 초대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메로베우스왕조, 카롤루스왕조, 카페왕조로 이어져 내려왔다.

생드니 수도사 리고르가 기술하고 있는 이러한 상상적 역사는 필리프 2세의 궁정에서 활동했던 기욤 르브르통에 의해 재생산되었다. 리고르가 기술한 『존엄왕 필리프의 업적』에 대한 다시쓰기를 하면서 그는 리고르가 파리아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 왕조의 기원을 아예 자신의 저술 맨 처음에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sup>14)</sup>

사실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프랑시옹과 달리 실제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는 안테노르(Antenor)는 프랑시옹의 라이벌로 수많은 게르만 종족들의 기원을 이루었다. 안테노르는 11세기에 뒤동 드 생캥탱(Dudon de Saint-Quentin)이 집필한 『초기 노르망디 공작들의 품행과 행적에 대하여(De moribus et actis primorum Normanniae ducum)』<sup>15)</sup>에서는 바이킹 출신의 노르만인들의 조상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11세기 말-12세기 초에 집필된 작자미상의 저서 『이탈리아 또는 베네치아 도시의 기원(Origo civitatum Italie seu Venetiarum)』에서는 베네치아인들의 조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sup>16)</sup> 또 12세기 전반기 잉글랜드 성직자 제프리 먼머스(Geoffrey of Monmouth)는

---

14) Henri-François Delaborde(ed.), *Ibid.*, 170-173.

15) Jules Lair(ed.), *De moribus et actis primorum normanniae ducum auctore Dudone Sancti Quintini*(Caen, 1865).

16) John Baldwin, *Philippe Auguste et son gouvernement. Les fondations du pouvoir royal en France au Moyen Âge*, Béatrice Bonne(trad.) (Paris: Fayard, 1991), 469.

『브리타니아 왕국의 역사(Historia Regum Britanniae)』라는 상상적 역사서술에서 로마에 의해 정복되기 이전 브리타니아인들의 기원을 아이네이아스의 손자인 브루투스(Brutus)로 소급하고 있었다.<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프랑스 왕조의 트로이 기원설이 특이한 점은 바로 이보르와 프랑시옹으로 대표되는, 트로이계의 골족과 프랑크족의 이중 이주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게르만족 또는 브리타니아인의 기원을 트로이에 단선적으로 연결하는 것 외에 리고르는 골족과 프랑크족이라는 서로 다른 종족들을 트로이에 연결시키고 있다. 전자가 트로이 귀족의 후손이라면 후자는 왕족의 후손이며 전자가 또 다른 트로이 왕족 출신인 로마인들에 의해 점령당했다면 이곳은 다시 후자에 의해 지배된다.

#### IV. 정치현실과 역사적 상상

그렇다면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상상적 역사는 과연 당시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일단 이 두 사람의 역사서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1) 게르만족들, 특히 프랑크족은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트로이인들의 후손들이다.
- 2) 프랑스 지역에 정착한 두 종족들은 본시 같은 종족의 두 갈래이다.
- 3) 필리프 2세가 속한 카페왕조는 메로베우스왕조와 카롤루스왕조를 연속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정식들은 다음의 정치적 의미들을 지니게 된다. 먼저 프랑크족의 트로이 기원설은 로마제국의 후손을 내세우는 모든 정치체들에 대해 프랑크 또는 프랑스왕국이 이들과 동등하며 나아가 독립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13세기 초에 이렇게 로마제국을

---

17) 이 책은 또한 브루투스의 후손으로 브리타니아를 통일한 왕 아서(Arthur)를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표방하고 있던 세력은 ‘로마’교황청과 신성‘로마’제국이였다.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로마제국은 로마이기보다는 그리스였으며 트로이를 멸망시킨 세력의 후손으로 해석되었다.<sup>18)</sup> 즉 트로이 기원설은 당시 서유럽 세계에 보편제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교황권과 황제권, 더 멀리는 동로마제국에 대한 프랑스의 독립성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단 종교와 상관 없이 투르크인들 또한 트로이인들의 후손으로 새로운 그리스인 동로마제국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는 리고르로 하여금 이들이 프랑스인들과 같은 트로이인 출신으로 먼 친척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하게끔 하였다.<sup>19)</sup> 다음으로 골족과 프랑크족을 모두 트로이인들의 후손들로 보는 입장은 프랑스를 구성하는 두 종족들의 동질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프랑스를 구성하고 있던 수많은 지방분권적 세력들을 프랑스라는 하나의 단일한 정치체로 포섭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즉 이중기원설은 서로 다른 준독립적인 지방적 정체성들을 결국 파리와 프랑스왕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왕조들의 연속성에 대한 논의는 필리프 2세 당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던 위그 카페의 왕위 찬탈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파리를 매개로 필리프 2세로 대표되는 카페왕조는 메로베우스 및 카롤루스 왕조와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지닌 왕조로 제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이 세 요소들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된다. 이 지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필리프 2세 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문제와 연결되며 이는 역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이데올로기적 주장들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 지점은 바로 지방 대귀족들의 정치적 정당성이었다. 필리프 2세의 즉위 전에 북부 프랑스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자는 왕이 아닌 플랑드르 백작 필리프 1세(Philippe I, 1157-1191)였으며 이후 그는 북부 프랑스 귀족들의 자부심을 상징하게 된다. 즉 북부 프랑스지역에서 필리프 2세는 왕권을 쉽사리 인정하지

18) Colette Beaune, *Ibid.*, 49.

19) 물론 이후 투르크인들의 트로이 기원설은 십자군의 대의에 따라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곧 폐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Colette Beaune, *Ibid.*, 48-49.

않는 대귀족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호소해야만 했다. 이들은 실제로 1214년 부빈전투에서 잉글랜드왕 존 그리고 신성로마제국 황제 오토 4세와 함께 프랑스왕 필리프 2세의 군대와 맞부딪치게 될 세력들이었다. 특히 이들의 급속한 몰락을 가져온 부빈 전투 이전에 이들은 다양한 역사문학 텍스트 생산을 후원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비판하고 봉건기사의 독립성을 역사적 진실성에 호소하며 정당화하고 있었다. 특히 플랑드르 백작의 가문은 모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카롤루스왕조의 후손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었다. 이는 카롤루스왕조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카페왕조에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sup>20)</sup> 개브리엘 슈피겔의 연구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실로 13세기 초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카페왕조 대 전통적인 지방귀족들 사이에 역사 이데올로기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들의 후원으로 집필된 『로마인의 업적(Faits des Romains)』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역사(Histoire de Jules César)』와 같이 로마사에 기댄 역사산문들은 존엄왕(August) 필리프를 독재자 카이사르에 비교하고 있었다.<sup>21)</sup> 지방귀족들, 특히 카롤루스왕조의 후예인 플랑드르 백작의 입장에서 보면 필리프 2세의 카페왕조는 근본 없는 지배자로 플랑드르와는 그 기원을 달리하며 로마의 독재자 카이사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가 무엇이였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왕국 내에서 필리프 2세의 통합정책은 전통적인 지방 대귀족들과의 갈등 및 투쟁을 초래하였고 이들에 대한 승리와 우위는 카페왕조의 권위와 정당성 확보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카페왕조의 트로이 기원설은 각 지방 수준에서 카페왕조가 각 지역의 토착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보다 오래되고 문명(도시, 법, 언어)에서 보다 우수한 세력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sup>22)</sup> 그러면서도 카페왕조는 토착세력과 크게 다른 종족이 아니라는 점을

20) Gabrielle M. Spiegel, *Romancing the Past. The Rise of Vernacular Prose Historiography in Thirteenth-Century France* (Berkeley, Los Angeles,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23-95.

21) Gabrielle M. Spiegel, *Ibid.*, ch.3-4.

22) Colette Beaune, *Ibid.*, 51-54.

강조한다. 필리프 2세는 궁극적으로 양자가 단일한 프랑스의 인민을 구성하길 바란다. 그러나 그에게 그 단일성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가장 유구한 역사를 주장하는 카페왕조여야 했다.

## V. 현실과 담론

중세 내내 프랑크족의 트로이 기원설이 유행했다는 점은 왕국의 통합과 관련한 작업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 왕국의 통합이 늘 미완성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214년의 부빈전투는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한 북부 프랑스 귀족들과의 충돌을, 그리고 1209년부터 시작된 알비 십자군은 툴루즈 백작을 중심으로 한 남부 프랑스 귀족들과의 충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빈 전투 직후 필리프 2세를 ‘트로이의 왕’으로 환호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서술은 지배와 종속, 정복과 투쟁의 역사를, 푸코가 단언하는 것처럼 지우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순치시키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기술하고 있는 역사담론의 겉표면은 동질성과 통합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종족이라는 구분으로도 모자란 다종다양한 지역적 균열들을 감추고 있다.

오히려 이 다종다양한 갈등은 마치 두 종족의 문제인 것처럼 단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는 투쟁에 초점을 맞춘 17세기의 불랭빌리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투쟁가능성이 두 세력들 간의 단순한 전선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세에는 다양한 지역적 갈등들이 두 종족의 문제로 치환되었듯이 이후 근대세계에서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두 종족의 갈등문제로 또는 한 종족의 생존문제로 치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는 기조와 부르주아 역사가자들이 프랑스의 역사를 귀족과 부르주아 사이의 계급투쟁으로 요약할 때에도 늘 상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푸코는 담론의 내용이 통합과 투쟁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지점에서

갈등과 투쟁의 다양성을 강조하던 그가 전선이 명확한 종족투쟁의 담론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종족투쟁의 담론이 감추고 있는 현실의 사회적 갈등이며 다종다양한 갈등들이 단순한 종족투쟁의 담론으로 환원되는 과정과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중세의 종족이주설들은 푸코의 단순한 평가와 달리 프랑스의 동질성에 대한 담론이지만 그것은 사회적 이질성과 정치적 갈등에 무관하기보다는 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다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균열들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대학교 hadrianus@daum.net

■ 지금 여기 ■

## 여전히 지속되는 라이시테를 둘러싼 갈등(프랑스)

박 단

### I.

《호모미그란스》(e-Journal *Homomigrans*) 8호가 나온 후 프랑스에서 일어난 최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다양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지만, 필자의 눈에 띄는 사건은 대략 프랑스 내 소수자에 관한 기사들이다. 하나는 무슬림과 관련된 기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집시에 관한 기사들이다. 필자는 지금 집권 여당이 사회당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해 기존 우파 정권과 조금은 차별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사들을 읽어 보았다. 서로 다른 두 정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사회당의 사르코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회당 정권의 내무부 장관 마누엘 발스(Manuel Valls)의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헝가리 이주민 출신의 사르코지와 에스파냐 이주민 출신의 마누엘 발스는 적어도 이민자 문제에 관해서는 커다란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현장>을 공표하고, 모든 학교에 이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라이시테 가치를 교육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먼저 이미 지난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부르카 금지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프랑스 내 한 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현장>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II.

우선 부르카 금지와 관련된 글을 소개해 보자. 파리 근교에서 2013년 7월 ‘부르카 금지법’과 관련된 커다란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다수의



국내 신문에서도 이 사태를 다루었기에 일단 편의상 국내 신문을 이용하여 사태의 전말에 대해 알아 보고, 그에 대한 논의들이 어가기로 하겠다. 일단 《동아일보》 7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원어 표기 및 일부 문구 수정은 필자)

“프랑스 파리 교외에서 이슬람식 얼굴 가리개(Burqa) 단속 등에 대한 반발로 폭력 사태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파리 남서쪽 이블린(Yvelines) 지역의 트라프(Trappes) 시에서 20일 밤 차량 20여 대가 불타고 시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프랑스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이 사건은 18일 밤 한 시민이 얼굴 가리개를 한 아내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그는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밤부터 이슬람교도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 300여 명이 트라프 경찰서 인근으로 몰려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트라프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14세 소년이 눈에 충상을 입고 경찰관 4명이 다쳤다. 시위는 주말 내내 계속됐으며 20일 새벽에는 자동차 한 대가 경찰서로 돌진하기도 했다. 르몽드지는 “엘랑쿠르나 기앙쿠르 같은 인근 지역에서도 버스 정류장과 거리에 세워 둔 자동차가 불에 타는 등 폭력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내무장관은 국내 무슬림 존중과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경찰을 늘려 배치했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4월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한 이후 ‘특정 종교를 노린 적대화 정책’이라는 이슬람교도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얼굴 가리개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3만 유로(약 4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리개를 쓴 여성은 소액의 벌금(150유로-22만원)을 내거나 시민의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파리 교외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한 것은 2005년 경찰에 쫓기던 청소년 2명이 변전소에 숨었다가 감전돼 죽으면서 촉발된 시위 이후 처음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설, 즉 해당자의 남편이 가해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르몽드》에 따르면, 경찰이 부르카를 쓴 카산드라(Cassandra)라는 21세의 유부녀의 신분증을 검사하면서 그녀에게 “여기는 카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남편인 20세의 미카엘(Michael)이 개입하여 경찰관을 목조르려고 함으로써 구속되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는 경찰이 남편을 자동차 본넷에 얹드리게 하고 부인의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남편 혹은 경찰의 가해 논란으로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부르카 금지법이 회자되면서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랑스에서 왜 일명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1989년 프랑스 우아즈 도(道)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시작된 ‘히잡 사건’은 20년이 지난 2009년에 ‘부르카 사건’으로 ‘진화’하였고, 2010년 7월 하원에서 그리고 같은 해 9월 마침내 상원에서 부르카, 니잡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프랑스공화국에서 무슬림 여성의 전통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도 처음에는 라이시테(laïcité) 원칙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차후에는 ‘여성의 존엄성’, 심지어는 공공안전(sécurité publique) 문제로 변모하고 있다. 201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부르카 착용 금지법의 통과나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라 불리는 로마(Roma)의 대규모 추방 등도 공공안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프랑스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라고 생각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르카 착용에 대하여 여성의 굴종이라는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며, 부르카 착용이 “프랑스공화국 영토에서는 환영받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철창 뒤의 죄수가 되면서,

모든 사회생활에서 단절되고, 모든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프랑스공화국이 ‘여성의 존엄성’을 중요시한다는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부르카를 언급하면서 ‘히잡 사건’ 당시 논쟁의 핵심이었던 라이시테뿐만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 그리고 공공안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온몸을 휘감으며 눈 부위마저 망사로 가리고 있는 부르카는 최근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히잡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사실, 히잡 논쟁 당시 불거졌던 라이시테의 규범으로는 공공장소(l'espace public)에서 성인의 옷차림을 규제하기 쉽지 않다. 성인 여성의 부르카 착용은 라이시테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르카의 착용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보수여당은 중도파와 더불어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수 여당은 사회당과 달리 길거리에서조차 부르카 착용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회당은 만일 부르카를 공공장소에 금지시켜야 한다면, 정부청사, 병원, 공공교통수단 등 일부 장소에서만 금지시키기를 원하였다. 즉, 이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시청이나 기차역 혹은 은행과 같은 일부 보호받아야 할 건물에서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보안상의 문제가 가장 명백한 이유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무슬림에 대해 갖는 의식은 무슬림을 전쟁, 테러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서구인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그 전에는 일단 부르카를 입은 채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려하기도 하였다. 2011년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사실 이 법이 엄격히 지켜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르카 착용이 엄격히 규제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언급한 트라프 사건이 2013년 7월에 일어남으로써 이 법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여전히 지속되는 라이시테를 둘러싼 갈등(프랑스)

2. 종교중립적인 (프랑스) 공화국은 정교분리 국가이다. 국가는 종교적 신념이나 정신적 신념에 대해 중립적이다. 프랑스에는 국교가 없다.
3. 라이시테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개인은 믿거나 혹은 믿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라이시테는 공공질서를 지키는 한 그리고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는 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허락한다.
4. 라이시테는 공공 이익에 대한 고려 속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과 박애를 각 개인의 자유와 조화시킴으로써 시민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5. 공화국은 학교 내에서 이 원칙들 각각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한다.
6. 학교의 라이시테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유 의지를 행사하며, 시민권획득을 준비하게 하는 조건들을 제공한다. 이는 모든 과도한 포교활동과 학생 개개인의 독자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압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7. 라이시테는 학생들에게 공통의 문화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
8. 라이시테는 공화국의 가치와 신념의 다원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학교가 순조롭게 기능하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허락한다.
9. 라이시테는 모든 폭력과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에 기초한다.
10. 학생들에게 라이시테의 방향과 가치 및 공화국의 다른 기본 원칙을 전달하는 것은 모든 교직원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학교 내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데 신경을 써야한다. 이 라이시테 현장을 학부모들이 알도록 하는 것도 교사들의 소관이다.
11. 교직원들은 엄격한 중립의 의무가 있다. 즉,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
12. 교육은 종교중립적이다. 다양한 세계적 관점과 넓고 정확한 지식을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주제도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사전에 배제되지 않는다. 어떠한 학생도 교사에게 교과목의 문제를 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혹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울 수 없다.
13. 어떠한 것도 공화국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종교 소속을 우선할 수는 없다.

14. 공립학교에서, 내규에 적시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공간들의 규칙들은 라이시테를 존중한다. 학생들이 종교적 소속감을 가지적으로 나타내는 복장이나 표식의 착용은 금지된다.
15.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찰이나 활동에 의해 학교 내에서 라이시테가 유지되는 데 공헌한다.

사실, 이 현장은 갑자기 발표된 것은 아니었다. 페이용 장관은 2012년 이미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현장>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 현장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정 종교에서 터부시 하는 학교급식 음식(예를 들면 돼지고기) 제공 문제나 혹은 크리스마스과 같은 종교축제 등의 문제는 교묘히 회피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명분으로 수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을 상기하고 있다. 대체로 이 내용은 2004년 ‘종교상징물 착용 금지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9년부터 프랑스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1994년, 2003년 주기적으로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히잡문제는 마침내 2004년 3월 15일 모든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실제적으로는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논란이 일단락 된 바가 있다.

그러면 왜 지금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문제가 다시 강조되는가? 일부에서 평가하듯이 “대체로 학교는 잘 기능하고 있지만, 소수의 학교는 여전히 공동체화(communautarisé)되거나 인종그룹화(ethnalisé)”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한 생물교사는 “진화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코란과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여 백지를 낸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교육부는 ‘현장’을 각 학급에 부착하고 설명하는 것 외에, 2015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까지 라이시테 가치(la morale laïque)의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제3공화국 초기 라이시테가 처음 도입될 당시로 되돌아간 듯하다. 페이용 장관은 “학교는 라이시테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 의미를 설명하며, 그 역사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것을 교육하지 않으면, 미래에 라이시테 가치 등이 무시되고 잊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이 현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도과 정당인 민주독립연합(UDI)의 회장인 장-루이 보를루(Jean-Louis Borloo)는 이 현장을 훌륭한 텍스트(bon texte)로 평가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표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극우정당인 민족전선의 대표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실질적 효과 없는 ... 홍보용 손짓”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정부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말하며 이는 정부의 나약함을 내 보일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라이시테 준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입장은 여전히 정파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하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 라이시테 준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의 입장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 IV.

프랑스에서는 내년 3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뿐만 아니라 5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치는 국민의 감정을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사회는 무슬림 이민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이민정책을 대표적인 정강으로 내세우는 민족전선이 약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013년 10월 남동부의 작은 도시 브리볼에서 민족전선 후보는 1차 투표에서 40.4%, 2차 투표에서 53.9%를 얻어 낙승했다. 또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24%의 지지를 얻어 대중운동연합 22%, 사회당 19%을 앞지를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다. 이 모두를 무슬림 이민자와 연계할 수는 없지만, 무슬림 이민자와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르카 문제, 라이시테 문제가 프랑스 사회에서 계속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서강대학교 dahn@sogang.ac.kr

■ 지금 여기 ■

## <보스톤 마라톤 테러 사건>에 대한 단상

이 정 하

### I.

2013년 4월 15일(한국시간 4월 16일) 2시 50분경 보스톤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던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서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실 보스톤 마라톤 대회는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대회이다. 1947년 서운복이 당시 세계 최고기록인 2시간 25분 39초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1954년에는 함기룡이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1년에는 이봉주가 51년 만에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던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 날 대회 우승자가 결승점을 지난 지 2시간쯤 되어 결승점 부근에서 폭발이 2번 연달아 약 12초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폭발물은 사제폭탄 종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의복에서 베어링 등의 파편이 발견되었다. 폭발물에 베어링이나 파편 등을 넣는 것은 수류탄이나 클레이모어처럼 파편 효과로 인해 비교적 작은 폭발물로도 높은 살상효과를 노릴 때 쓰이는 방법으로, 폭발범의 의도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목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폭발물 중 하나는 압력솥에 폭발물을 채우고 불베어링과 못 등 각종 파편을 집어넣어 살상력을 극대화시킨 형태였다. FBI와 국토보안국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압력솥 폭탄은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며, 2010년

5월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있었던 차량 폭탄 테러 시도 당시에도 이러한 형태의 폭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용한 폭발물은 TNT, C4같은 군용 高폭약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低폭약류인 총탄에 사용된 화약을 모아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제조의 용이함 때문에 단독 테러리스트도 이런 것을 애용하는 편이고 이미 제조법도 널리 공개된 형태이며 폭발물이 일반 총탄용 화약인 경우 미국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 누구나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폭탄제조의 기법만으로는 배후를 특정 짓기는 매우 어려워 보였다.

8살 어린이도 포함된 총3명의 사망자와 18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이 테러의 용의자는 26세의 타메를란 안조로비치 차르나예프(Tamerlan Anzorovich Tsarnaev)와 19세의 조하르 안조로비치 차르나예프(Dzhokhar Anzorovich Tsarnaev) 형제로 밝혀졌다. 이들은 체첸인으로 10여 년간 미국에서 거주해오고 있었다. 한편 형인 타메를란은 경찰과의 대치중 폭탄을 두르고 돌진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법이 전형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지하드 테러 방식이라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제2의 9.11 테러라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체포 직전 도주하던 동생 조하르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동생 조하르는 메사추세츠주 한 주택가의 보트 안에 숨어 있다가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되었다.

## II.

전 세계는 지난 몇 달 동안 체첸인인 차르나예프 형제가 어떤 식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살아왔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를 뉴스를 통해 듣고 있다. 타메를란의 경우는 계류 중이나 조하르의 경우 2012년 9월 1일부로 시민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몇몇 평론가들은 이 사건이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테러와 관련하여 러시아정부의 의뢰로 2011년 1월 FBI가 타메를란 차르나예프를 조사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민법 자체가 폐기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타메를란이 2012년 다케스탄에 6개월을 머무르면서 이번 폭파사건과 관련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자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사건발생 4일 뒤인 4월 19일 미 상원 법사위에서 있었던 1차 청문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래스리(Chuck Grassley)가 이 사건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과 연결지우며 이민법 개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극우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킹(Steven King) 의원 등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원통과가 실패한 총기규제법과 더불어 오바마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Rand Paul)은 민주당 상원의원 해리 레이드(Harry Reid)에 보낸 편지에서 국가안보문제가 전반적인 이민법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장차 테러행위를 저지를 위협이 있는 이민자들을 막는데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폭탄테러 사건을 이민법 개혁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민법은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과 이민법 개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크게는 이민법 개혁을 반대하는 미국 주류사회와 이들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미국 정치계의 일면과 작게는 이들 형제들을 보는 미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사회의 이러한 시각은 차치하더라도, 체첸의 불행한 경험으로 인해 난민신분으로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들 형제와 그 가족들에 대한 주변의 시선 또한 이들에게 관대하지 않다. 조하르의 삼촌인 루슬란 차르니(Ruslan Tsarni)는 조카의 범행이 “미국사회의 낙오자로서 미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증오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체첸 자치정부 수장 람잔 카디로프(Ramzan Akhmadovich Kadyrov)는 “사람들이 내게 왜 (체첸인인)차르나예프 형제를 옹호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온다”면서 “그동안 그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느라 기다렸지만 이제는 타메를란과 조하르 차르나예프 형제가 진짜 악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듯이 이들 형제와 그

가족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뉴잉글랜드 주 헤비급 권투 대표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던 26세의 타메를란과 그의 동생 조하르는 스케이드 보드를 즐기고 랩 음악듣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미국 젊은이들처럼 보인다. 2009년 자신의 복싱 경력에 관한 대화중에서, 타메를란은 체첸이 독립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러시아를 위해서 싸울 바에는 미국을 위해서 권투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체첸이 겪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에게도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그가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자이냐의 여부보다도, 전쟁과 강제이주를 비롯한 체첸이 겪은 불행한 기억과 그로 인해 고향을 떠나 혼돈 속에서 살아갔던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보다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 III.

체첸인들은 동북 캅카스 산악지대에서 거주하며 고유의 체첸어를 사용하는 독자성을 띄고 있던 집단이었으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친 러시아에 대항한 무슬림부족들의 저항 속에서 전사(戰士)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이맘 샤밀(Imam Shamil)을 중심으로 한 저항이 1859년 진압된 이후 많은 체첸 전사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캅카스를 떠나 자신들의 뛰어난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주로 오토만제국에 고용되어 살아갔다. 오토만제국군에서도 그들의 군사적 명성으로 북캅카스 산악인이라는 의미인 체르케스(Circassian)로 불리며 자신들의 군사적 전통을 유지하는 부대가 따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러시아제국이 무너진 이후에도 많은 체첸인들은 고향에 머무를 수 없었다. 1917년 혁명 이후 레닌의 민족자치 방침에 따라 1924년 체첸자치주와 잉구시(Ingush)자치주가 설치되고, 1936년에는 체첸-잉구시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1944년 독소전 당시 독일군에 협력했다는 명목으로 당시 체첸 인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50 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였고, 이후 강제이주방침에 대한 저항과 이주 당시 사망으로 인해 약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비밀경찰 총수 라브렌티 베리아(Lavrenty Beria)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위 체체비차 작전(Operation Chechevitsa)으로 불린 조치를 통해, 91,250명의 잉구시인을 포함한 총 478,479명이 강제 이주 당하였다. 이들은 스탈린 사망 후 4년 뒤인 1957년에야 흐루쇼프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이러한 강제 이주의 경험은 체첸인들 에게 참혹한 집단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1957년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차르나예프 형제의 아버지 안조르처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등지에 남아 고단한 삶을 꾸려갔고, 고향으로 돌아간 체첸인들 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단절된 생활과 기억으로 인해 다시 찾은 고향에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직범죄 등에 연루되곤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체첸인들은 소연방시절 군과 비밀경찰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 장교단과 KGB등의 비밀경찰 조직에서 복무하는 비율이 러시아계를 제외한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체첸 독립의 영웅이자 지도자인 조하르 두다예프(Dzhokhar Dudaev)는 소연방공군 소장으로 복무하면서 핵폭격기 전단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소연방의 붕괴도 체첸인들 에게 편안한 안식을 보장하지 못했다. 1991년 10월 체첸의 대통령에 취임한 조하르 두다예프는 1993년 체첸의 독립을 선언하고 非체첸계 주민들을 추방하기 시작하였고, 체첸 지역의 유전과 송유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던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제1차 체첸전쟁(1994-1996)과 제2차 체첸전쟁(1999-2009)이 발생하였다. 2009년 러시아군이 철수함으로써 체첸에서의 전쟁은 종식되었으나, 전쟁이 남긴 상처는 주변 공화국, 즉 차르나예프 가족들이 미국 이민이전에 잠시 머물렀던 다게스탄과 같은 지역들에 잔존하고 있다.

IV.

두 형제는 체첸인 안조르 차르나예프(Anzor Tsarnaev)와 다게스탄인 주베이다트(Zubeidat)사이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다. 두 형제의 아버지인 안조르가 1940년대 스탈린의 강제이주 이후 키르기스스탄에 정착한 이후, 이들 가족은 미국 이민이전까지 인구 55,000명의 北키르기스스탄의 토크모크(Tokmok)에 살고 있었다. 토크모크는 소련방 시절에는 군용 항공기의 시험비행과 생산 시설이 있던 곳으로 군수산업이 매우 번성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이곳 군수공장들이 문을 닫게 된 후에는 실직자가 넘쳐나는 낙후된 지역이었다. 2000년대 초반 이들 가족은 1990년대 이미 난민프로그램을 통해 이주했던 안조르의 형제들의 권유로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조르와 그의 부인은 난민자격으로 2002년 초 미국에 도착하였고, 곧 그들의 두 아들과 두 딸도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차르나예프 가족은 매사추세츠주 소머빌과 캠브리지 사이의 저소득층 주택가에 등지를 틀었다. 이들 역시 이민자들이 흔히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안조르는 길거리에서 시간당 10달러에 차를 수리해주는 자동차수리공으로, 주베이다트는 미용사로 일하였다. 2004년 주베이다트가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역의 한 상점에서 여성의류 9점을 훔친 죄로 체포된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고를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듯하다. 어메리칸 드림의 주된 경로인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도 이들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타메를란은 2006년 가을학기에서 2008년 가을학기까지 병커힐 커뮤니티 칼리지(Bunker Hill Community College)에서 3학기동안 파트타임 학생으로 회계학을 공부하였으나, 고질적인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민 직후부터 아버지의 권유로 권투를 시작하였던 타메를란은 대학을 중퇴한 후부터는 선수 생활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뉴잉글랜드 지역예선에서 우승한 타메를란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2009년 골든글러브 전국 토너먼트에도 출전하였으나 1차전에서 탈락하였다. 권투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이 멀어지는 가운데 사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타메를란은 2009년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당시 사건은 2010년 배심원재판에서 기각 처리되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 주베이다트는 타메를란이 술과 대마초에 빠져들까 걱정하여 이슬람교에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 결과 타메를란은 이슬람교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으며 이슬람교에 점차 심취하였고, 다른 가족들도 보다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을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이 문제로 이들 가족에게 내분이 발생했다. 타메를란의 권고에 따라 주베이다트가 차도르를 착용하자 남편 안조르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안조르는 자신이 소연방 시절에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며, 당시에는 무슬림들이 엄격한 규율을 따를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라고 언급했다. “나는 아들이 언젠가는 챔피언이 되도록 혹은 다른 미국인들과 같이 무엇인가를 이루도록 훈련시켰지만, 그는 모든 걸 저버렸다.” 이러한 갈등과 건강상의 문제로 안조르는 부인과 헤어지고 이후 키르키스스탄으로 되돌아갔다.

치과의사를 꿈꾸던 동생 조하르는 고등학교를 2011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 진학하였다. 의미심장한 것은 조하르라는 이름이 체첸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차르나예프 가족이 형의 이름을 무슬림 영웅 티무르(Timur)에서 따왔다면, 동생의 이름은 무하마드(Muhammad), 아마드(Ahmad) 혹은 이사(Isa) 등의 이슬람식 이름이 아닌 러시아에 대항한 체첸전쟁의 영웅 조하르 두다예프에서 따왔음을 알 수 있다. 차르나예프 가족이 전통적인 이슬람적 가치관외에도 세속적이나 한편으로 체첸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체첸인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V.

타메를란은 한동안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져 있었다. 미국에서 그의 시신을 출신지인 러시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체첸 정부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체첸 자치정부 수장 카디로프는 “체첸과 차르나예프 형제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성장했고, 그들의 시각 또한 미국에서 형성되었다. 만일 악의 뿌리를 찾는다면 그 장소는 미국일 것이다. 그들은 체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미국인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 부모들에 의해 미국으로 보내졌으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그 결과”라고 꼬집었다.

타메를란이 테러 전까지 살았던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 당국은 “시민들이 간신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는 시점에 테러범을 우리 관내에 묻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것이며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메를란의 시신을 보관 중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시 장례식장의 피터 스테판(Peter Stephan) 대표는 “장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타메를란의 시신을 체첸으로 보내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타메를란의 어머니 주베이다트는 스테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아들의 시신을 러시아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패트릭 벤틀렐(Patrick Bantrel)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타메를란의 시신을 러시아로 보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사건발생 약 3주뒤인 5월 9일(한국시간 5월 10일) 타메를란의 시신을 관리해오던 우스터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한 용기있고 동정심있는 인사의 도움”으로 비공개 장소에 매장되었다고 한다.

급진적 이슬람주의로 무장한 지하드용사의 이미지보다는, 고향을 떠나 정착하지 못했던 자신의 조상들처럼 타메를란의 시신도 갈 곳 없이

떠도는듯하다. 아마도 이번 사건은 불행한 과거로 인해 체첸인들이 떠안고 있었던 분노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와중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의 항상 그렇듯이’ 실패하고만 한 체첸인 이주가족의 절망을 보는듯하다.

서울대학교 budennyi@gmail.com

■ 다녀와서, 보고와서 ■

## 박물관이 보여주는 지중해 문명의 미래 : 마르세유의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MuCEM)> 을 다녀와서

김진영

라 마르세에즈(La Marseillaise)를 부르며 킬리리 궁으로 들어간 마르세유의 용군이 가졌을 열정, 프랑스를 대표하는 축구스타 지네딘 지단(Zinedine Zidane)의 개인기 ‘마르세유 롤렛’과 같은 화려함 그리고 어지러움, 알렉상드르 뒤마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묘사한 마르세유의 이프 섬(Château d’If)에서 느껴지는 음산함. 이 복합적인 감정은 처음 마르세유에 발을 디뎠을 때 내가 받았던 느낌이었다. 지난 여름, 박단 선생님과 함께 한 달간 프랑스에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개장한 마르세유의 뮤셈 박물관에 한 번 다녀와 보라고 추천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 남부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마르세유에 들러 뮤셈에 다녀오게 되었다.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세 시간 반 만에 도착한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답게 활기차 보였으며, 구 항구(Vieux Port)를 가득 채운 보트와 요트, 광장에 펼쳐진 노점은 화려하다 못해 어지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사이사이로 보이는 어두운 골목길과 스산한 거리를 보았을 때는 이 도시가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마르세유에서 받았던 첫 인상은 아마 마르세유가 겪어온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중해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며 ‘제국의 항구’라는 별명을 가진 마르세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프랑스적이지 않은 도시이다. 기원전 600년 경 그리스의 식민지로 시작된 마르세유는 로마 제국 시기 갈리아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으며, 중세를 거쳐 근대에는 프랑



스의 지중해 무역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항구도시의 특성 상 수많은 외부인들이 마르세유를 드나들었는데, 20세기 초에는 이탈리아인이 인구의 40%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그 후에는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지배로 마그레브 지역의 사람들 역시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이렇듯 마르세유는 도시가 시작될 때부터 지중해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공존하고 융합되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구 시가지에서 바라본 뮈쎄의 생장 요새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이하 뮈쎄, MuCEM, Musée des civilisations de l'Europe et de la Méditerranée)은 유럽과 지중해의 연결고리인 마르세유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박물관이다. 유럽과 지중해 문명의 역

사를 메인 테마로 한 뮈쎄는 설립 계획이 세워진 2000년 이후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까지 알제리 관련 전시회와 같은 몇 가지의 예비 전시회가 열려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뮈쎄는 이러한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올해인 2013년 6월 4일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참여하여 개관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유럽 지중해 문명의 역사를 다루는 최초의 박물관이자 지방에 위치한 프랑스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올해의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된 마르세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문화 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뮈쎄의 개장은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다고 한다. 박물관의 위치 역시 어느 정도 이러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뮈쎄는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마르세유 항구의 입구를 지켜왔던 생장 요새(Fort Saint-Jean)와 과거 여객터미널이었던 J4에 건설되어 지중해와 마르세유를 잇는 역사적 장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마르세유를 여행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마르세유를 방문하는 여행자가 가장 먼저 둘러보는 구 시가지 지역(Le Panier District)과 구 항구를 따라 걷다보면 가장 끝에 있는 생장 요새에 도착하게 된다. 다른 박물관처럼 일부러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었다. 내가 뮈쎄를 방문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 시가지 여행을 하면서 생장 요새의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뮤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관과 풍경이었다. 우뚝 솟은 요새와 그 뒤로 보이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뮤썬은 박물관의 전시품뿐만 아니라 풍경과 경치로 하나의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구 시가지에서 요새로 들어가는 높고 좁은 구름다리에 서면 마치 전망대에 올라온 것처럼 마르세유의 구 항구를 한 눈에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박물관은 그물 모양의 콘크리트가 유리 건물을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4층 높이의 박물관 건물은 전체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고, 관람객들이 건물의 외벽을 두르는 통로를 통해 박물관의 내부와 바깥의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실제로 이 건물은 루브르 이슬람 전시관을 디자인한 유명한 건축가 루디 리시오티(Rudy Ricciotti)가 설계했는데, 그는 박물관 건물을 구상할 때 항구와 바다를 가진 마르세유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돌, 물, 바람’을 모티브로 하여 건물의 설계 도면을 그렸다고 한다.

내가 뮤썬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생장 요새와 박물관의 테라스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박물관 티켓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요새와 박물관의 외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공원과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장 요새를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박물관 테라스는 건물과 어울리는 디자인 의자가 놓여 있어 독서를 하는 사람들, 피크닉을 나온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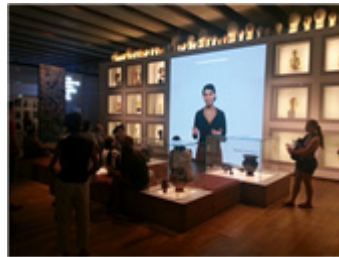
뮤썬 테라스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

박물관은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생장 요새 안에 있는 작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몇 개의 소규모 전시실이었고, 여기서 다시 구름다리를 타고 지나가면 뮤썬의 메인 건물인 J4로 들어갈 수 있

었다. 박물관의 상설 전시실은 이 J4에 있는데, 여기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중해 문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상설 전시실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중해 문명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물관의 구성은 시대 순서로 되어 있었다. 뮌헨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1층의 전시관에는 농경과 관계시설의 도입, 종교의 등장으로 시작된 초기 지중해 문명을 소개하고 있었다. 다음 전시실에서는 지중해 지역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세 가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었다. 이들의 유일신 사상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아케나톤이 기존의 다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태양신 아톤만을 숭배했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시기 이집트에서 출현한 유일신 사상이 전파되어 세 종교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예루살렘이 각기 다른 종교의 성지로 취급되어 한 도시 내에서 상이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예루살렘 전시관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유물과 모형, 그리고 설명으로 전시실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관람객들이 입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람실을 배치한 것이었다. 물론 여타 박물관에도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지만, 뮌헨은 관람객들이

유물을 보는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청각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품들이 배치된 가운데 큐레이터의 영상이 나오면서 각 유물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종교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도시의 전경과 유적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더 생생하게 박물관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소하지만 방문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뮌헨 상설전시실 내부

이어지는 전시실에서는 지중해의 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는 노예와 여성을 배제했다는 한계

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표와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로마와 베니스를 거쳐 근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베니스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 활동을 진행했으며, 대항해시대로 해상의 주도권이 대서양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지중해 무역의 선두 역할을 수행해왔다. 근대 시대를 소개하는 전시실에서는 프랑스 혁명부터 이어져온 혁명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었으며, 제국주의의 팽창을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침략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특히 알제리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1830년 프랑스의 알제리 침공부터 양차대전을 거쳐 1962년 독립, 그리고 그 후의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에 대한 전시품과 설명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시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뮤지엄의 주제인 지중해 문명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물관이 의도하고자 했던 모습은 지금까지 전시관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 서로 교류하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흘러온 지중해 문명이 현재는 그 교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라 느껴졌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자스민 혁명과,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갈등,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 시리아 내전과 같은 요소들은 지중해 문명이 함께 공존하고 나아가는 길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르단의 상황을 비판하는 짧은 영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아주 현대화되고 첨단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층 빌딩의 내부 생활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화의 막바지에는 그 빌딩이 슬럼가로 둘러싸여 있고 슬럼가와 빌딩 사이에는 높은 벽이 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요르단의 지도층과 일반 서민 간의 괴리를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지중해와 접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혁명과 시위, 탄압을 찍은 비디오를 한 곳에 배치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중해 지역의 혼란을 또렷하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상설 전시관에 이어 뮤지엄 내부의 일부 전시관과 생장 요새에서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주제들도 매우 흥미로웠다. 한 쪽에서는 한창 프랑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히잡과 관련한 전시가 있었고, 또 한 편에서는 섹시즘과 관련된 주제로, 그리고 생장 요새의 전시관에서는 프랑스로 이주해온 노동자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히잡을 전시

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플라르가 현재에는 종교적, 전통적, 또는 개인의 패션이나 성적인 정숙과 같이 다양한 의도로 착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여성의 해방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히잡에 대한 많은 사진과 전시품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란에서 히잡이 포함되어 있는 여성 축구 국가대표의 유니폼과, 루이비통 무늬로 된 히잡, 부르카를 착용하고 온 몸을 가린 여성들이 최신식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히잡의 의미과 기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뮤썸은 여타 박물관과는 다르게 지중해 문명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역사 전체를 재배치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박물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타 박물관들은 특정한 세부적 주제를 다루고 있거나, 역사 전체를 개괄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대다수이지만, 이곳은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는 역사의 부분들을 지중해 문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결하여, 관람객들이 자연스레 지중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엮어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전시관을 둘러 본 후에는 문명에 관한 하나의 책을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구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중해 문명을 인식하도록 만들면서, 기존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름을 빌린 새로운 서구의 식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뮤썸에서 이슬람 문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지중해 문명을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중해 문명의 발전 양상을 표현하는 부분이나, 현재 지중해 문명의 공존을 저해하는 요소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적 혼란에 집중하여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서구 문명을 발전되고 따라야 할 것으로 여기고, 뒤쳐진 지역은 서구 문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고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뮤썸의 개장만으로 지중해 문화권의 공존과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뮤썸은 지중해 문명이라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단순히 문화재와 유물을 수집하고 발견된 것들을 서구

## 박물관이 보여주는 지중해 문명의 미래

의, 프랑스의 입장에서 전시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된 전시품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마르세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과 지중해의 문화 수도가 될 것이며, 뮤썸은 그것을 실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다.

첨단의 시설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된 뮤썸을 나와 파리로 돌아가기 위해 마르세유 생샤를 역(Gare Saint-Charles)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어두운 골목길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뮤썸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둡고 좁은 길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아랍계 아저씨들이 허름한 노점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관광객과 시민으로 붐비던 뮤썸에서 10분 떨어진 거리에는 황량하고 스산한 이주민의 마을이 존재했다. 화려한 뮤썸이 지중해 문명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희망찬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곳은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뮤썸에서 찍은 사진

서강대 서양사학과 석사과정, adelaide16@naver.com

■ 책을 읽고 ■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 지음, 하정희 옮김,  
『인종차별의 역사』 (서울: 예지, 2013), 383쪽.

문 중 현

I.

프랑스의 저술가, 철학자 이자 사상사가인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Christian Delacampagne)의 『인종차별의 역사』는 2000년에 출간된 이래 프랑스 대학 강좌에서 인종주의에 관한 주된 개설서로 이용될 만큼 학문적, 대중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저작이다. 이 책은 부제에서 드러나듯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오늘날 프랑스까지 존재하는 인종차별의 다양한 형태를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인종주의가 지닌 다면적 얼굴을 시대 순으로 보여준다. 1984년 파야(Fayard) 출판사에서 출간된 들라캉파뉴의 박사논문 『인종주의의 발명(L'invention du racisme: Antiquité et Moyen Age)』은 프랑스 역사학계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 평가 받았는데 『인종차별의 역사』는 들라캉파뉴가 인종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대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박사논문을 개작한 저작이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간전기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과 2차세계대전기의 쇼아, 현재 프랑스 사회에 존재하는 반무슬림 현상, 그리고 90년대 르완다에서 발생한 투치인들에 대한 집단학살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등 현대의 인종주의 현상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또한 들라캉파뉴는 2002년 『노예의 역사(Une Histoire de l'esclavage, de L'Antiquité à nos jours)』를 출간하였다. 이 저작은 『인종차별의 역사』와 쌍을 이루는 저작으로서 인종에 기반한 가장 본질적 차별의 형식이었던 노예와 노예제를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역사적 기원과 변형을 탐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프랑스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책이 지니는 약점이라고 생각된다. 인종주의가 식민지에서 발생한 백인 이주민과 유색인 정착민, 그리고 혼혈인을 구분하는 새로운 ‘신분’제도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고 식민모국에서 보다는 식민지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폭력적으로 제도화, 정당화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인종주의란 ‘천개의 머리가 달린 히드라이자 복잡한 태생에 변신을 멈추지 않는 프로테우스이다’. 다시 말해 인종주의는 마치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시험’ 중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아무리 머리를 잘라도 새롭게 머리가 자라라는 히드라처럼 구체적이며 다양한 상황과 국면에서 자신의 또 다른 얼굴로 살아나는 것으로 쉽게 사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참혹한 쇼아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고 6,70년대 미국의 민권투쟁을 거치면서 인종주의는 더 이상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이자 사회적 규범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종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 부적격자 이거나 비교양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사회적 ‘악’으로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그러자 인종주의는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갱신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종주의는 더 이상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교묘히 인종간의 ‘문화적’ 차이들을 본질화, 절대화 시키면서 공존이 아닌 배제와 차별의 논리적 근거로 기능하는 새로운 모습을 가지면서 이른바 ‘신인종주의’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프랑스에서 부활하였다. 공론의장에서 인종주의는 더 이상 이전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여러 사회문제들 속에서 그 그림자를 으스스푸레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때로는 인권과 여성주의에 결합해서, 또는 실업과 이민을 연결시키며 사회적 문제를 다른 인종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외부화, 본질화 시킨다. 장기적 경제불황과 급격한 세계화 흐름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희생양’을 탄생시키는 인종주의는 결국 자신들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의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타자를 동화시키는 것 또는 동화되지 않는 타자는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거나 추방하는 것 이외의 다른 해결책은 없다’라는 식의 ‘신화적’ 해결만을 제시한다.



결국 들라캥파뉴의 『인종차별의 역사』는 프랑스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종주의에 맞서는 사회적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응답 중 하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종주의의 확산이 반인종주의 연구의 사회적 필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프랑스에서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출간되기 시작하는 인종주의, 이민, 식민주의, 알제리전쟁, 방리유, 무슬림을 다루는 저작들은 모두 위의 동일한 사회적 배경들을 공유한다.

## II.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책의 제목이 ‘인종주의의 역사(une histoire du racisme)’가 아닌 ‘인종차별의 역사(une histoire de la discrimination raciale)’로 바뀌었다. 역자로서는 인종주의가 내포한 근본적인 ‘차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선택한 것 같으나 그냥 인종주의의 역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먼저 인종주의라는 것이 ‘인종’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에 따른 인종들의 신체적 특징이 인종들의 문화적, 정신적 요소를 결정한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종’이라는 것이 위계적 질서 속에 서열화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종주의라는 의미 속에는 사이비 과학에 근거해서든, 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근거해서든 이미 ‘차별’이라는 사회적 기제가 작동되고 있음이 자연스럽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인 들라캥파뉴가 주장하듯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사회적 차별은 ‘인종’이라는 요소이외에도 ‘신분’, ‘종교’, ‘젠더’, ‘민족’ 등의 이유로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우리가 ‘여성의 역사’라고 일반적으로 제목 붙이지 ‘여성차별의 역사’라고 굳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강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또한 ‘인종’이라는 관념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전제할 과연 볼테르, 몽테스키외, 디드로 등의 ‘계몽주의자들은 인종차별주의자 인가?’하는 역사적 인식의 문제가 제기된다. 반카톨릭 성향으로 인해 인류다기원론을 지지한 것이 인종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종주의자이긴 하지만 ‘이들을 인종차별론자로 확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그 시대적 인종담론 지형에 관한 복합적 설명을 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종을 논한다고 모두 인종차별론 자로 기소하는 것은 역사인식의 과잉으로 역사인식이 굴절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자이자 정치철학자인 타기프(Taguieff)의 경우 객관적 인종의 존재를 긍정하는 인종주의를 racialisme으로 개념 지으면서 racism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에 의하면 racialisme은 18세기 과학혁명의 과정에서 자연사에 근거하여 인간의 역사와 정치, 사상을 설명해 내려왔던 것으로 인종적 차별과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들라캥파뉴와 타기프의 시각은 엇갈린다. racialisme과 racism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들라캥파뉴는 ‘9장 우월한 인종에 대한 신화’에서 타기프가 주장하는 고비노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면서 고비노의 작품을 진정한 ‘프랑스의 수치’로 평가한다. 하지만 고비노를 낭만주의 시대의 오리엔탈리스트로서 알제리 식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졌던 다양한 고비노의 사상적 궤적을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너무 편취하는 듯하다. 특히 인종주의는 외국인혐오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와는 구별되어 논해야 한다고 할 때 고비노의 사상은 과학적 인종주의의 모습보다는 낭만적 자민족중심주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종주의를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 감정들에 기인하는 위의 경향성과 혼동하여 사용할 때 인종주의는 극복할 수 없는 것 초역사적 존재로 또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것으로 파악하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 III.

들라캥파뉴가 이 책에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종주의가 언제, 어떻게 서구에서 발명되었는가?’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명쾌하다. 그에 의하면 인종주의가 내포하는 역사적인 ‘차별’의 논리가 ‘인종’과 결합되어 나타난 것은 지극히 근대적 현상으로 하나의 ‘근대적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종주의의 익숙한 형태인 ‘피부색’에 따른 인종적 구분(백인, 흑인, 황인)은 고작 그 기원이

18세기 생물학 발전과 서구의 팽창을 배경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했다. 서양고대사회나 중세사회에서 피부색의 의미는 ‘인종’과는 전혀 상관관계를 지니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히 인종주의는 사회적 편견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계몽이 확대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공유되었다. 그러나 인종주의를 오로지 편견과 사이비과학, 파시즘체제의 산물로 취급하면서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일한 판단이었음이 드러났다. 저자 역시 ‘인종차별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문제들이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인종차별의 굵어진 실제 역사 속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복잡해지는 그 변화 속으로, 사회, 문화적인 그 다양한 모습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책이 정한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종주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상대화, 역사화 시키는 작업은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들라캥파뉴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자 프랑스 반유대주의 연구의 선구자인 레옹 폴리아코프(Leon Poliakov)는 1927년 천체물리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아인슈타인이 “악마는 도처에 존재한다. 아마도 악마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인과론적 관념의 뿌리이다”라고 한말은 이후 폴리아코프 반유대주의 역사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행위(doing)가 아닌 존재(being)로 인간을 인식하고 악마적 인종집단이 세상의 불행과 혼란의 원인인 것처럼 인간과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인종주의가 지닌 고유한 속성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종주의를 ‘악마화’ 하는 것은 반인종주의 투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악마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또한 이 악마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피는지에 대한 분석은 오늘날 인종주의라는 악마가 성장해 가고 있음에 따라 더욱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번역어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어려운 번역 작업을 수행한 역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지만 용어에 있어서 한국의 서양사가들이 이미 번역해 놓은 용어를 참고했으면 더욱 좋을 듯 했다. 목자들의 십자군은 목동 십자군, 인류다윈론은 인류다기원론, 인류단원론은 인류단일기원론,

크리스티앙 들라캥파뉴 지음, 하정희 옮김, 『인종차별의 역사』

유대교 배척주의는 반유대교주의, 흑인 단속법은 흑인법, 퇴영주의(immobilisme)는 정체론, 부인론은 부정론(négationnisme), 국가사회주의당을 민족사회주의당, 라푸주의 도태론적 견해는 선택론적(sélectionnistes)견해, 전멸 전쟁은 절멸 전쟁(guerre d'anéantissement), 반유대민족주의는 반유대주의, 인도법을 인도주의법(lois de l'humanité), 구스타브 르봉의 저서 『민중심리학』은 『대중심리학』, ‘프랑스투쟁연맹’은 ‘악시옹 프랑세즈’, 『자발적인 학대자들』은 『자발적인 사형집행인들』으로 수정되면 좋겠다는 제언을 해 본다.

한양대학교 entendu@naver.com

■ 책을 읽고 ■

이선주 지음, 『경계인들의 목소리 -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 (서울: 그린비, 2013) 203쪽.

오 윤 호

“나는 항상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안락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뿌리박힌 존재라고 느끼지는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다”

- 창래 리-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수는 모두 140만 9,577명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수의 2.8%에 해당하는 수다.<sup>1)</sup> 이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경제적 조건 속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현상이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전지구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주민 및 이주자<sup>2)</sup>의 현실과 다문화적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전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인문학적 주제가 되었다.

1) 서울경제, 2012.08.09.

2) 본고에서는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주자(오윤화)와 디아스포라(이선주)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우리말과 외국어라는 어감의 차이도 상당하지만, 경계인에 대한 한국적 시각과 미국 문화 속에서의 경계인의 시각을 같으면서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읽는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의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현실 변화에 발맞춰서 2000년대 이후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문화’, ‘다문화주의’ 등 새로운 정책 및 담론을 내놓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경계, 문화적 혼종성, 새로운 다가치적 사회를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졌고, 공익광고에서도 심심찮게 “외국인 이주자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주제의 광고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다 보자. 나는 외국인 이주자 문제와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영화나 소설 재현을 강의할 때마다 대학생들 앞에서 먼 이국의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낯은 목소리의 여행자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어설픈 예언자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외국인 이주자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는 없겠지만”이나 “혹시 안산 외국인 거리나 마석 가구 단지에 가면”이라는 말로 시작해보지만, 대학생들의 시선에 남아 있는 당혹감과 무관심을 감추기란 쉽지 않다. ‘외국인’이라면 영어 원어민 교사를 떠올릴만한 환경에서 살아온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외국인의 노동권과 시민권, 그들의 문화 적응과 왜곡된 자본주의적 현실을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당혹스러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이 시차적 간극을 만들어내는가?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한 ‘다문화 정책’의 왜곡된 양상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며, 심층적으로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들의 인권과 시민권 및 다문화적 가치에 있다기 보다는 값싼 노동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모두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적응’하고 있는가? 그들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차이로 만들어지는 주체와 타자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영화나 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형상화를 분석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 시대의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필자 역시 2000년대 소설 속에 나타난 외국인 이주자의 형상화를 분석하며, 외국인 이주자를 내부 타자와 동일시하고, 이국문화를 신비화하며, 외국인 노동자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국인 이주자를 타자화하는 서술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sup>3)</sup> 이러한 소설 재현의 한계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작가가 직접 소설을 쓰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문화적 소수자의 내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소설은 아직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현할 수 없는가? 외국인 이주자의 2세, 3세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0년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그저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가?

이선주의 『경계인들의 목소리』<sup>4)</sup>는 전지구적으로 전개되는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 소설이 형상화하는 디아스포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있다. 『경계인들의 목소리』라는 도발적인 제목도 눈길을 끌지만, 미국 문학 내의 아시아계 소설이 재현하는 인종적 문화적 혼종성과 디아스포라로서의 수행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책이다.

『경계인들의 목소리』는 앞서 필자가 던지는 외국인 이주자의 목소리와 문화적 위치에 대한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소설 재현 속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게 됨으로써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혼종적 삶과 왜곡된 자본주의적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또한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와 문화 속에 놓이게 된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며, 전지구적인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경계인들의 목소리』는 이주자의 문화적 위치를 정교하게 설정하기

---

3) 오윤호, 「외국인 이주자의 형상화와 우리 안의 타자담론」, 『현대문학이론 연구』 40권, 2010, 241~263.

4) 이선주, 『경계인들의 목소리 -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 (서울: 그린비, 2013). 본문에서 인용문 뒤에 숫자만 적힌 경우는 이 책의 쪽수임.

위해, 시민과 대립되는 대상으로 ‘이주자’ 혹은 ‘비(非)시민’이 아닌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위치시키고 있다. ‘디아스포라’를 선택한 이유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인 이주자보다는,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상과 갈등을 더 길게 함축한 용어를 원했다”(8쪽)고 언급하며, “세계화 속에서 가장 주변적 존재가 된 이주자들”이 갖고 있는 ‘민족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계 넘기’, ‘집단적 의식’, ‘행위자’라는 개념들로 이들을 분석하겠다고 밝힌다. 시민과 디아스포라의 사이를 탐색한다는 설정과 디아스포라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겠다는 방향은 서로 다른 문제를 내포한다.

『경계인들의 목소리』의 1장은 시민권의 역사를 개괄하고 자본주의 현실에서 ‘디아스포라의 산포’가 발생하는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시민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은 길고도 지난하며 치열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경합의 산물이다”(16쪽)라고 밝히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부터 조르주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까지 서구 유럽의 지성들을 불러내 ‘시민’과 ‘시민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근대 시민(권)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시민(권) 제도는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점이다.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 시스템을 구체화했던 것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시민(권)이었던 것이다. 이때의 시민(권)은 구체화된 실제의 모습을 가진 것이기도 하지만,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민족)만큼이나 추상화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흩어진 자들’ 또는 ‘산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그 기원에 대한 탐색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확산을 비증있게 다룬다. 디아스포라는 기원전 607년 이스라엘에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쫓겨나 강제 이주당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서구는 생산과 개발의 현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담당할 수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생겨나거나(16세기),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내부식민지에 따른 농촌을 떠나는 난민들이 도시에 유입되기도 하고(17-18세기), 중국인과 일본인이 태반인 계약노동자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19-20세기) 이후 “자본주의가 낳은 불균등 발전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집단적인 디아스포라를 유발하게 된다.”(45쪽) 이러한 현상은 후기 산업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전지구적인 디아스포라 현상이 21세기에든 여전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근대 국가의 형성과 시민(권)의 등장, 자본주의의 발달과 디아스포라의 증가라는 두 가지 상황은 시계 속 톱니바퀴처럼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 국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내면화하면서 정치 경제의 역학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간다. 그 와중에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시민(권)은 억압받고 통제되는 디아스포라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하고 소외시키는 하나의 정책으로 활용된다. 시민과 디아스포라는 국가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표상으로 존재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국가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 다른 표상들이며, 똑같은 기의의 동일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은 국가라는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시민과 자본주의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디아스포라 모두가 필요하며, ‘범’이라는 경계선을 좌우로 시민과 디아스포라는 분리 배치해 놓은 것이다. 책의 부제목이기도 한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사이’는 차이를 전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체화된 표상이라는 동질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제시한 것이다.<sup>5)</sup>

『경계인들의 목소리』는 2장에서 6장까지 미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내면화한 디아스포라의 삶이 가진 다층적인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경계 넘기’, ‘집단적 의식’, ‘행위자’를 중요한 분석적 시각으로 사용하며 역사와 이주, 인종적 소통과

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과 그린비가 만드는 <사이시리즈>는 ‘탈경계 인문학’ 일반교양 도서로서 사이, 경계에서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존재와 사유를 연구하는 대중서이다. <타자와 우리 사이>,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 등과 같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사이’를 매개로 사유하고 연구함으로써 두 대상 사이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선주 지음, 『경계인들의 목소리 -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

문화번역, 왜곡된 자본주의와 미디어의 폭력성 등 20·21세기 사회학과 인문학에서 다룬만한 주요한 논제들을 꼼꼼하게 분석해낸다.

존 오카다의 『노노 보이』를 다룬 2장 ‘모국과 이주국 사이에 끼이다’는 진주만 공습 이후 자국 내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입영시켰던 미국 정부의 부당한 폭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이들 일본인들이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 겪는 무력감과 내면화되는 폭력성을 잘 보여 준다. 전세계적인 이민을 통해 만들어진 미국이 일본계 미국인을 탄압했던 것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시민(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내의 단일 국민성을 지향하는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으로 디아스포라한 소수 인종의 탄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로 유명한 창래 리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처 라이프』를 논하고 있는 3장 ‘민족을 가로질러 공통분모를 찾는 사람’과 4장 ‘동화와 그 이면’은 미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계 디아스포라들이 거주국 미국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열망과 좌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20세기 초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일본인이 되고, 미국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민자들이 이민 온 초창기에는 고국의 사람들과의 결속에서 힘을 얻지만 점차 자기 민족의 틀을 벗어나 미국 내의 다른 민족들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며 함께 뭉쳐서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그리고 있다.”(84쪽) 뉴욕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계 정치인 존 강이 등장하며 소수민족의 정치화와 초(超)민족적 연대 가능성을 시도하지만 미국 정부와 주류 사회는 이러한 정치적 행동을 비열하게 응징한다. 한편 『제스처 라이프』는 조선인이었지만 일본인 행세를 했던 일본계 미국인인 플랭클린 하타의 삶을 다루며 미국인이

되고자하는 패싱(passing, 다른 인종/민족인 척하기)<sup>6)</sup>의 욕망과 젠더화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소설로 인종적·문화적 ‘혼종’ 속에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되고자하는 비체화된 소수민족의 삶을 구현하고 있다.

5장 ‘이주국에서의 문화번역’은 한국계 1.5세 작가 수키 김이 쓴 『통역사』를 통해 디아스포라들의 문화번역과 처절한 적응을 분석하고 있다. 『통역사』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공부하는 29살 수지가 코리아 타운에서 살해된 자기 부모님의 비밀을 찾아가는 소설로, 불륜과 살인 등 극단적인 상황을 겪는 디아스포라의 소외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통역사처럼 두 세계, 두 문화 속에서 위치한 존재다. 그러나 “디아스포라(이민자)에게 문화번역은 생존의 문화번”(124쪽)이고 적극적인 수행성을 통한 번역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6장 ‘지구화시대 이주자들의 혼종성’은 일본계 3세 작가 카렌 테이 야마시타의 『오렌지 회귀선』을 분석하며, 멕시코식 민중 서사, 미디어의 작동 양태와 자본의 생리, 탈중심성에 대한 천착 등 다양한 소재를 녹여 혼종사회의 거대한 지도를 그려내고 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오렌지 회귀선』은 다인종 사회인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속한 7명의 주인공이 번갈아 가며 서술하는 독특한 형식의 소설이다. 아라파투이는 『교배풀린 현대성』에서 현대성이 규칙화될 수 없고 균질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여, 핵심적인 요소로 이주와 미디어를 지목한다.(137쪽) 소설 속 배경이 되는 다인종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폭동을 생중계하는 미디어는 현대 사회의 혼종성과 그 이면의 폭력적 역학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6) “패싱은 동화의 극단적인 한 유형이다. 동화는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이 거주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익혀 거주국 국민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패싱은 익히고 모방하는 동화에다가 ‘행세하기’라는 속임이 강하게 배가 된다.” 이선주, 『경계인들의 목소리...』, 91.

이상에서 미국 내 디아스포라들의 혼종적 삶과 미국 정부와 주류 사회로부터 억압받는 문화적 차별 상황을 소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디아스포라의 혼종적 정체성과 유동하는 삶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각각의 소설 속 인물들이 이중 문화 혹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각각의 소설 속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상적인 시민은 누가 될 것인가? 시민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 내 아시아계 디아스포라의 위기 혹은 가능성을 진중하게 묻는 이 책의 서술 전략은 한편으로는 국가 시스템 안에 안전하게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시민(권)의 위기를 암묵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 책에서 디아스포라 문제로 분석하는 내용은 미국의 시민(권)에 내재한 균열을 발견하고 표상화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한국 내의 시차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안의 외국인 이주자를 재현할 수 있는가? 진정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때”는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수많은 인종적 문화적 차별이 법과 사회제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일 것이 분명하다. 미국 내 디아스포라의 문제가 결국 미국 시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환기한다면, 우리 시대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진지한 문학적 재현과 사회적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노력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경제적 계급적 하층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환대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에 앞서, 한국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적 지점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속화되는 다문화사회는 시민권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181쪽) “자국 문화의 편협한 구속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세계문화의 다양성과 타자의 문화적 관점을

이해”(73쪽)하는 코스모폴리탄의 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fictus@ewha.ac.kr

■ 저널 리뷰 ■

*Small Axe: A Caribbean Platform for Criticism*  
- 사회적 개입과 새로운 학문 세대 양성을 추구하는 카리브  
의 탈식민주의 저널

하 영 준

I

“『호모미그란스』의 한 꼭지로 ‘저널 리뷰’나 ‘논문 리뷰’를 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처음 했을 때 가졌던 내 생각은 기존 서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면 좋겠다는 단순한 차원이었다. 연구자가 자기 영역의 최신 경향을 부담 없이 좀 더 순발력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였다. 그런데 첫 저널 리뷰를 직접 준비하는 과정은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호모미그란스』가 추구해야 할 학술적 지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최근 저널을 연구재단 등재지로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이민인종연구회의 논의는 이 질문의 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저널에 대한 간략한 검토와 소개가 이러한 난제에 손쉬운 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저널의 학문적 지향에 대한 고민 과정을 살펴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꺼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 소개하는 *Small Axe: A Caribbean Platform for Criticism*(이하, 『스몰 엑스』)라는 저널은 카리브의 최근 연구 동향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하였다.

『스몰 엑스』는 창간 역사가 비교적 짧지만 영어권 카리브 지역에서 가

장 선도적인 저널이다.<sup>1)</sup> 저널은 1997년 창간되어 매년 2회 발행되어 오다가, 2006년부터 매년 3회(3월, 7월, 11월)로 증간되었다. 현재 2013년 7월 41호가 발간되었다. 이 저널을 출간하는 듀크 대학 출판부(Duke University Press)의 소개를 보면, 『스몰 액스』는 카리브 근대성을 형성해 온 관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소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저널은 학술 논문, 에세이, 인터뷰, 서평 등 학술적 저작뿐만 아니라 단편 소설, 시, 시각 예술 같은 문화적 작품 등도 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면서 저널이 추구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는 카리브를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실천이다. 그러나 ‘개입의 저널(journal of intervention)’으로서의 처음 지향에 더해 ‘공인의 저널(journal of authorisation)’이 될 필요성에 최근 직면하고 있다. 카리브 연구를 위한 새로운 학문 세대의 육성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스몰 액스』는 사회적 실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창작과 비평』과 유사하지만, 학술지적 성격이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비평』에 좀 더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편집장은 데이비드 스콧(David Scott)이고 주요 편집자로는 앤서니 보그스(Anthony Bouges), 나디 에드워즈(Nadi Edwards), 애니 폴(Annie Paul) 등이 있다. 이들 모두는 자메이카 출신이지만, 전공은 인류학(스콧), 역사학(보그스), 문학(에드워즈) 시각예술(폴) 등 다양하다. 현재 스콧은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NY) 보그스는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 에드워즈와 폴은 서인도 대학의 모나 캠퍼스(The University of West Indies, Mona)에 재직하고 있다. 참고로 서인도 대학은 자메이카에 모나 캠퍼스가 있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세인트오거스틴(St. Augustine) 캠퍼스가 있다. 이들 편집위원은 우리 사회의 386 세대와 비슷한 면이 있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갖 정치적으로 독립한 자메이카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블랙파워 운동’ 같은 저항적 민족주의와 제 3세계 사회주의의 세례를 받아 급진화된 세대이다.

---

1) “Criticism as a question: David Scott talks to Nicholas Laughlin about *Small Axe*,” *The Caribbean Review of Books*, November 2008 (<http://caribbeanreviewofbooks.com>, 참조)

『스몰엑스』의 창간을 주도했고, 지금까지 편집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스콧은 카리브의 인류학 연구자이지만 탈식민주의 이론 연구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서는 *Refashioning Futures: Criticism after Postcolonialit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와 *Conscripts of Modernity: The Tragedy of Colonial Enlightenment*(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등이다. 이들 연구의 학문적 중요성은 자메이카 출신의 유명한 문화 이론가,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대담자로 나섰던 2006년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sup>2)</sup> 스콧은 지금까지 카리브 지역의 탈식민 담론을 지배해 왔던 저항적 민족주의와 제 3세계 사회주의가 자신의 정치적 상상력을 모두 소진했다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탈식민주의 적인 패러다임의 모색을 요청하고 있다. 저널의 발간 취지를 보면 이러한 스콧의 입장을 곳곳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 II

『스몰 엑스』는 앞에서 언급했듯 ‘개입’을 지향하는 저널이다. 기성의 지배적 인식론에 도전하면서 카리브의 정치·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저널의 사회적 지향은 그 이름 유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스몰 엑스(Small Axe, 작은 도끼)’는 자메이카 출신의 ‘전설적 레게 뮤지션’, 밥 말리(Bob Marley)가 1973년에 작곡 발표한 노래 제목에서 따왔다. 밥 말리는 노래로 혁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혁명의 조건을 창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다. “If you are a big tree, we are a small axe.”라는 가사를 담은 밥 말리의 노래는 당대에 정점에 이르렀던 블랙 파워 운동의 흑인 급진주의를 대변하였다. 도처에 존재하는 제국주의 억압자를 제 3세계 민중이 도끼로 나무를 쓰러뜨리듯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고를 일차적 메시지로 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빅 트리(big tree)’는 자메이카 음악 산업을 지배했던 3대 음반회사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노래 ‘스몰 엑스’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기성 지배세력을 전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널 『스몰 엑스』는

2) “David Scott by Stuart Hall” Bomb 90, Winter 2005.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불러 올 수 있기 위해서 기성의 지배적인 개념과 가치를 해체하는 카리브의 ‘작은 도끼’가 되고자 한다.

『스몰 엑스』가 탈식민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단절된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 저널의 과거 전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어권 카리브에서 『계간 신세계(New World Quarterly, 1965~1972)』가 1970년대 초에 폐간되고, 그 이어 출간된 『사바코우(Savacou, 1970~1979)』가 1970년대 말 폐간된 이래 토착적인 비판을 창출하려는 독립된 저널은 1997년 『스몰 엑스』가 창간될 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계간 신세계』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의 지식인이자 저명한 경제학 교수였던 로이드 베스트(Lloyd Best)를 대표로 삼아 서인도 대학의 모나 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과학자 연구모임인 ‘신세계 그룹(New World Group)’이 발행하였다. ‘카리브 예술 운동(the Caribbean Artist’s Movement)’이 발행했던 저널 『사바코우』는 그 이름이 카리브 신화에 나오는 천둥과 바람을 다스리는 ‘새-신(bird god)’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바코우』를 편집했던 바베이도스 출신의 문학가 카마우 브래스웨이트(Kamau Brathwaite)는 서구 중심주의와 아프리카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카리브 사회가 독자적 민족(지역) 문화를 창출했음을 천명하였던 *The Development of Creole Society in Jamaica, 1770-1820*(Oxford: Oxford University, 1971)이라는 민족주의 연구서로 유명한 역사학자이기도 하다. 두 저널 『계간 신세계』와 『사바코우』는 영어권 카리브에서 독립 이후 등장한 기성 국가와 사회 체제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다.

1960~70년대 전성기를 이루었던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는 영어권 카리브 국가와 사회를 지배했던 흑인 중간계급의 크레올 민족주의(Creole nationalism)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는 크레올 민족주의를 ‘유럽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카리브적인 형태’ 또는 ‘흑인 중간계급의 앵글로색슨적인 성향’의 파생물로 간주하였다. 크레올 민족주의가 추구했던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와 ‘친미 반소’의 대외 정책, 영국 노동당 식의 온건한 사민주의 경제정책, 영국 빅토리아식 위신(respectability) 문화의 찬양 등은 그러한 파생적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

으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저항적 문화적 민족주의의 대변지였던 『계간 신세계』와 『사바코우』는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적 경향에서 카리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 온 방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두 저널이 단순히 카리브 사회의 이해를 지배했던 서구 중심주의적 인식론을 해체하고 크레올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 저널은 카리브에 토착적이고 지역적인 비평 언어와 개념을 창출하겠다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스몰 액스』는 카리브의 정치적·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창출하려는 이러한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 저널의 야심찬 비전을 계승하고자 한다.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가 사용하는 ‘토착적’이나 ‘지역적’이라는 용어는 논란을 일으키는 개념이지만, 『스몰 액스』는 이 개념의 타당성을 옹호한다. 식민주의와 함께 시작된 이주와 이산의 산물인 카리브는 ‘토착적’이나 ‘지역적’이라는 용어가 적용되기가 어려운 역사적 특수성을 지녔다. 카리브는 영토적 경계를 가진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의 주민을 연결하는 문화적 또는 정치적 네트워크로 접근할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의 글로벌화 과정은 다양한 메트로폴리탄 중심지에서 카리브 정체성을 구성하는 새로운 장소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장소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 대등하거나 대칭적인 것이 아니다. ‘디아스포라’나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용어는 이들 장소 사이에 동등성이나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줄 위험이 있으며, 글로벌 불평등과 주변화(marginalisation)의 역사와 정치를 무시할 수 있게 한다. 영어권 카리브에서 겪고 있는 미국으로의 인재 유출이라는 고질적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불평등과 주변화의 단지 작은 사례일 뿐이다. 『스몰 액스』가 자의식적으로 ‘지역적 카리브(the regional Caribbean)’에 집중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디아스포라 저널(diaspora journal)’이 아니라 ‘카리브 저널(Caribbean journal)’로서 규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역적 카리브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장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구적 불평등과 주변화를 고려할 때 그 지역 삶에 기초한 지적·문화적 형태와 전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몰 엑스』는 지역적 카리브를 통해서 토착적인 새로운 비평 언어와 개념을 창출하려고 했던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 저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전통의 갱신을 또한 추구하고 있다. 이들 저널이 카리브의 ‘작은 도끼’였던 1960~1970년대와는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 저널에게 정치적 영감을 제공했던 ‘반둥 프로젝트(Bandung project)’와 ‘제3세계 사회주의’는 오래전에 실패했고, 오늘날은 글로벌화가 카리브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도 네루(Jawaharlal Nehru)와 이집트 나세르(Gamal A. Nasser)가 추구했던 제3세계 국제적 연대의 반둥 프로젝트는 과거의 망각 속으로 사라졌고, 니에레레(Julius K. Nyerere)의 탄자니아에서부터 마이클 맨리(Michael Manley)의 자메이카와 모리스 비숍(Mauris Bishop)의 그레나다로 이어지는 제 3세계 사회주의는 지속된 실패와 오명으로 결국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스몰 엑스』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카리브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른 비평 언어와 개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스몰 엑스』가 찾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질문이다.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민족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과거의 질문은 유지한 채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일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스몰 엑스』는 이러한 준비된 답의 부재가 저널로서 스스로의 존재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카리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주권과 자결의 토대, 지적·미적 판단의 근거, 발전과 진보의 의미, 가능한 정치적 미래의 이데올로기적·제도적 형태 등등 카리브 근대성을 규정한다고 간주되어왔던 것들이 새롭게 사고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의 오랜 패러다임은 더 이상 그럴듯해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스스로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스몰 엑스』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는 위협을 무릎쓰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직 그것만이 암울한 현재의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스몰 액스』는 카리브를 재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추구하는 저널로서 처음 출발했지만, 오늘날 카리브 연구를 위한 새로운 학문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저널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저널을 읽는 잠재적 독자이자 기고자가 새로운 젊은 세대의 카리브 학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몰 액스』가 사회적 개입의 저널일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공인된 저널이기를 바란다. 편집장인 스콧은 새로운 세대의 카리브 학자 상당수가 여성 학자이며 카리브와 북미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고, 저널의 편집진과는 세대가 다른 1970년대에 태어나서 민족주의 프로젝트에 회의적인 세대라고 진단한다. 이들 신세대 연구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던지는 『스몰 액스』에서 자신의 정치적 플랫폼을 발견하지만, 이들은 또한 자기가 배우고 가르치는 대학에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저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카리브 학자 세대의 요구는 저널이 학술적 공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를 제기하고, 추측컨대 이러한 방향으로 『스몰 액스』는 나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학술적으로 공인된 저널이 되고자 하는 것과 카리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지향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제도화된 안정성을 필요로 하지만 후자는 창의적인 유연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긴장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자신의 학문적 지향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스스로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저널의 과제이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 지면적인 한계가 있다. 다만 2006년 이후 3회 발생으로 늘어난 것은 아마도 이러한 노력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다.

### III

저널 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스몰 액스』는 다른 학술 저널과 비슷하다. 거의 매호 특집이 있고, 논문, 에세이, 인터뷰, 책토론(Book Discussion), 단편 소설, 시각 예술 자료, “Visual Life of Catastrophic

History” 같은 연재 기획 프로젝트 등이 부정기적으로 실린다. 2013년 특집 주제는 41호의 “What is Caribbean Studies?,” 40호의 “The Idea of Black Radical Tradition,” 등 이었다. 이들 특집 주제를 살펴보면 저널이 지닌 카리브 지향성과 급진주의적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심층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특집은 전통적인 카리브의 연구 주제로 간주되어 왔던 것을 선택하면서도 편집장인 스콧의 학문적 성향을 강하게 반영하여 포스트푸코주의 또는 탈식민주의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41호 카리브 지역 연구나 40호의 흑인 급진주의 전통을 다룬 특집 주제는 그 개념과 범주에 대한 탈식민주의적인 검토에서 시작하고 있다.

저널 구성에서 흥미를 끄는 독특한 것은 인터뷰와 책토론이다. 인터뷰는 카리브의 학문적 전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관련 전문 학자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심층 대담 방식은 한국에서 『역사와 문화』나 『역사비평』이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카리브는 과거 오랫동안 식민주의와 서구중심주의가 미친 영향으로 오랫동안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지도 못했고, 학문적 전통의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 인터뷰는 서구 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카리브 자신의 학문 전통을 재발견하고 갱신하고자 하는 저널의 설립 취지가 반영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설탕과 권력』으로 잘 알려진 인류학자 시드니 민츠(Sidney W. Mintz)와의 대담 제목, “The Anthropology of Ourselves: An Interview with Sidney W. Mintz”은 이러한 인터뷰의 학문적 지향성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인터뷰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민츠 이외에 자메이카 출신이자 하버드 대학의 역사 문화 사회학자 패터슨(Orlando Patterson), 그레나다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 콜린스(Merle Collins), ‘크레올리테 운동(Creolite Movement)’으로 잘 알려진 마리티니크 출신의 샴오아조(Patrick Chamoiseau), 자메이카 출신 학자 및 사회 비평가 네틀포드(Rex Nettleford), 자메이카의 예술가 쿠파(Laura Facey Cooper) 등으로 다양하다.

『스몰 엑스』가 제공하는 책토론은 이 저널이 지닌 또 다른 특색을 반영

한다. 책 토론은 카리브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저작을 선정하여 적어도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이에 대한 비판적인 서평을 쓰고, 다시 저자가 그 비판에 대한 답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신간 소개나 주례사 비평의 차원이 아니라 매우 논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 토론의 방식도 과거 한국 서양사 저널에서 시도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어느 저널이었던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책 토론은 카리브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2003년 발간된 14호의 ‘책 토론’은 캐서린 홀(Catherine Hall)의 중요한 역사서, *Civilising Subjects: Metropole and Colony in the English Imagination 1830-1867*(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에 대한 것이었는데, 관련 전문가가 4명이 각기 서평을 쓰고 저자가 총괄적으로 비판에 답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최근에 가장 흥미로웠던 책 토론은 벅모스(Susan Buck-Morss) *Hegel, Haiti and Universal History*(2009)에 대한 것이었다. 2010년 발간된 33호에서 편집장인 스콧과 *Modernity Disavowed: Haiti and the Cultures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4)이라는 아이티 혁명사 연구로 유명한 피셔(Sibylle Fisher)가 보편사의 문제와 관련된 비판적 서평을 썼고, 벅모스가 이들 비판에 대한 답하면서 보편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스몰 액스』에 참여하고 있는 카리브 연구자들은 출판된 저널의 형태 이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학과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SX Salon’은 두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디지털 저널 형태로 문학과 문화 토픽과 관련된 서평, 인터뷰, 토론 등 학술 연구물과 더불어 소설과 시 등의 카리브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다.<sup>3)</sup> 또한 1년에 한번 카리브 지역을 대상으로 ‘스몰 액스 문학 경연(the Small Axe Literary Competition)’도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SX Space’는 ‘SX Salon’의 자매지로서 시각 예술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저널이다. 『스몰 액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Sx Salon’과 ‘SX Space’ 모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스몰 액스』의 참여 연구자들이 다양한 전공을 지녔으면서도 문

3) “This question of place: a conversation with Kelly Baker Josephs,” *The Caribbean Review of Books*, March, 2011.

학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카리브의 식민지 역사와 관련이 있다. 카리브 식민지인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주요하게 기여해왔던 것은 서구중심적이고 식민주의적이었던 학술 연구가 아니라 문학과 문화였다. 전체 인구가 2천 만도 안되는 영어권 카리브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2명이나 나왔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스몰 엑스』가 카리브의 비판 전통을 창출하고 재검토하는데 문학과 문화에 중요한 관심을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스몰 엑스』는 카리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과 새로운 학문 세대의 양성을 자신의 야심찬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이 둘 사이에 긴장 이외에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 우선, 편집장인 스콧처럼 편집진을 포함한 상당수가 미국 대학에 자리를 잡은 디아스포라 연구자라는 점이 그것이다. 사실 이들이 가지는 카리브 사회에 대한 강한 학문적 발언권은 글로벌한 불평등, 즉 이들이 미국 명문 대학의 교수들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실존은 제 1 세계 유명 대학에 자리 잡고 있는 저명한 탈식민주의 연구자들의 공통된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몰 엑스』의 참여 연구자들이 지역적 카리브를 통해 토착적 비평 언어와 개념의 창출이라는 학문적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모순과 긴장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지향과 실존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긴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어낼 갈 수 있는지가 저널의 성장에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 연구자의 학문적 지향과 그 실존 사이에 관계란 다른 한편으로 지식인과 대중 사이에 긴장이라는 오래된 주제의 새로운 변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스몰 엑스』가 고민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탈식민주의 저널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서 대중이 이해하기에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점이다. 편집장인 스콧은 이러한 저널의 난해성을 새로운 비평 언어를 창출해야 한다는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대중적인 쉬운 글쓰기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과거 민족주의 저널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용되는 언어와 개념이 익숙하지 않



기 때문에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스콧은 투명한 글쓰기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언어와 사회 사이의 관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 사고를 요구한다. 언어는 사회의 투명한 반영물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가 사회를 재 사고하는 인지적 공간을 열 수 있다. 개념적·이론적 언어는 난해하더라도 새로운 지적 공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몰 액스』가 디아스포라 연구자들 자기만의 폐쇄된 공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구나 자신의 학문적 지향과 실존 사이에 긴장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대중적 글쓰기는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로였지만 과거 민족주의 저널과 사회주의 저널은 스스로 대중적 글쓰기를 지향했고 여러 대중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원하지 않더라도 대중과 소통해야 하는 외부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반면 오늘날 학문 지형은 사회 운동 및 일반 대중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쉽게 우물 안 아카데미즘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저널뿐만 아니라 대다수 저널이 새로운 언어와 개념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빌미로 선불리 대중 지향성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더욱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카리브 저널 『스몰 액스』가 추구하는 학문적 지향, 인터뷰와 책토론 같은 저널의 구성, 편집진과 그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 - 사회적 개입과 학술적 제도화, 학문적 지향과 디아스포라적인 실존, 대중적 글쓰기의 문제 - 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들 난제는 쉽게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저널이 보여줄 역동성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를 이론적, 제도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토착적인 비평 언어와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저널, 『호모미그란스』가 내년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학문적 지향이 무엇인지, 『호모미그란스』의 설립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검토와 성찰이 아닌가 싶다.

중앙대학교 hayoungjun1@gmail.com



## 호모미그란스 휘보

### I. 연구회 일정

■ 상반기 학술세미나(2013.4.6/서강대학교)

○ 텍스트: Lentin, Alana, and Gavan Titley, *The Crises of Multiculturalism : Racism in a Neoliberal Age*(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2011).

○ 발제자

- Ch.1 Recited truths: the contours of multicultural crisis - 염운옥
- Ch.2 Let's talk about your culture: post-race, post-racism - 하영준
- Ch.3 Free like me: the polyphony of liberal post-racialism - 문종현
- Ch.4 Mediating the crisis: circuits of belief - 신동규
- Ch.5 Good and bad diversity: the shape of neoliberal racisms - 김정옥
- Ch.6장 On one more condition: the politics of integration today - 양재혁

■ 상반기 정기 콜로키움 (2013.5.11/한성대학교)

1. 5세기 말~6세기 초 게르만족의 대이동: 침입인가 이주인가?  
발표자: 홍용진(고려대)
2. The British Lady Traveller Isabella Bird in East Asia: A theorist of Globalization?  
발표자: Klaus DITTRICH(고려대), “
3. 생시몽과 동양  
발표자: 양재혁(성균관대)

■ 종강모임(2013.6.24)

- 영화관람: 유지태 감독, <마이 라띠마> (광화문 인디 스페이스)
- 저녁식사

■ 상반기 워크숍: “영화속의 이주자들” (2013.8.19-20/대명리조트 단양/후원: 라인플러스)

○ 학술발표

1. 콜롬비아, 미국 그리고 ‘불법’ 이민 여성의 신체  
발표자: 권은혜
2. 영화 <영광의 날들(Indigènes)>에 나타난 북아프리카 출신 군인의 정체성  
발표자: 신동규
3. 켈 로치의 <자유로운 세계>와 침묵당한 동유럽 이주민들의 욕망

- 발표자: 오승은  
4. 독일 베트남 이주민: 이주자의 통합과 교육의 관계  
발표자: 윤용선  
○총회 및 답사

■ 하반기 학술세미나(2013.10.19/서강대학교)

- 텍스트: Etienne Balibar and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 발제자  
Part I. Universal Racism - 황혜성  
Part II. The Historical Nation - 오승은  
Part III. Classes : Polarization and Overdetermination - 신동규  
Parti IV. Displacements of Social Conflict? - 홍용진

■ 하반기 정기 콜로키움(2013.11.9/한성대학교)

1. 이재원, 2차대전기 프랑스의 강제이주노동자: 인도차이나 노동자·군인의 경우
2. 이찬행, 1965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
3. 나혜심, 내 책을 말한다: 『독일로 간 한인간호여성』 (산과글, 2012)

## II. 저서 및 역서 간행

듀보이스, W. E. B., 『니그로』, 황혜성 옮김, 삼천리, 2013.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3.  
박지현, 『비시 프랑스, 잃어버린 역사는 없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3.

## III. 회원동정

김정옥: 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조교수로 임용  
신동규: 창원대학교 사학과에 조교수로 임용

## 이민 · 인종연구회 회칙

제정: 2009년 2월 16일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민인종연구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ity Studie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이민인종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회는 회장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2012년 6월 14일 개정

## 제1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불가능하다.
  - 2) 서평의 경우, 각주를 포함한 투고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3) 『 』 (전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4) 「 」 (전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에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예3).

2) 서양어, 동양어, 한국어 모두 인용 문헌의 페이지 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1) 홍길동√편,√『서양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2),√12.

(예2) 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서양고대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6),√12.

(예3) 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and√New√Controversies√(London√&√New√York:√Routledge,√1998),√12.

(예4) 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

l/Imperialism/under/the/Early/Stuarts,” A. Fletcher & P. Roberts, eds., *Religion,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2.

-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 「호레이쇼 열저와 성공신화」, 『미국사연구』, 4집(1996), 12.

홍길동, 『프랑스 근대사 연구』 (서울:길동출판사, 1998), 12.

(예2) 木畑洋一, 『帝国のたそがれ: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 (東京:東京大学出版会, 1996年).

(예3) 草光俊男, 「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 『史学雑誌』, 3号(2004).

-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1), 9.

(예2) Michel Vovelle, *La Révolution contre l'Église - De la Raison à l'Être Suprême* (Paris: Gallimard, 1988), 12-13.

(예3) Michael Schneider, *Streit um Arbeitszeit. Geschichte des Kampfes um Arbeitszeitverkürzung in Deutschland* (Köln: Suhrkamp, 1984), 15.

-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1952), 287.

(예2) Serge Bianchi, “Les Curés Roug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249(1982), 364.



(예3) J. Kocka, "Zurück zur Erzählung? Plädoyer für 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0(1984), 395-408.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서울:길동출판사, 1998), 13.

- 홍길동, 같은 책, 25.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예)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120.

- Ibid.

- Ibid., 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 홍길동, 『서양의 지적 전통』 (서울:길동출판사, 1998), 13.

→ 홍길동, 『서양의 지적 전통』, 15.

(예2)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120.

→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 E. J. Hobsbawm, *강명세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길동출판사, 1994), 30.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10)서평 형식 및 표기(안)

- √ 서평에는 따로 제목을 달지 않는다.
- √ 해외 문헌인 경우, 제목은 원서 그대로, 본문에는 번역 제목을 명시한다.
- √ 본문의 기본 표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제 목

필 자  
이 태 정

본 문

(필자 정보: 소속, 이메일)  
(한양대 사회학과, 123@4567.890)

1. 국내문헌인 경우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정체성의 정치학』

홍태영, 서강대출판부, 2011, 400쪽.

2. 번역서인 경우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서 제목, 저자, 출판사, 000pp.

예: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찾아서: 사회의 재창조』

조너선 섉스 지음, 서대경 옮김, 말글빛남, 2009, 520쪽.

*The Home We Build Together*, Jonathan Sacks, Continuum, 272pp.

3. 해외문헌인 경우

제목(이탤릭)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수

예: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Mae M. Ngai,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400pp.

4. 목차 표기 방법(지난 호에 기준해서 수정)

<서평>

책 제목, 저자.

    필자 ----- 페이지수

예: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Mae M. Ngai. 권은혜 ----- 00

『정체성의 정치학』, 홍태영. 박 단 ----- 00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